

2004년도 환경교육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환경현장교육 부문]

사업명 :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현장교육
중심의 생태문화 보전운동

2004년 12월 31일

제출자 :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7-3 1층
전화 043-256-3429 / 전송 257-3429
웹페이지 www.ter.or.kr

1. 사업명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현장교육 중심의 생태문화 보전운동 (원흥이 생태지도 제작)

2. 사업목적 :

가. 취지

- (1)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원흥이 마을은 1994년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IMF를 거치면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199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재지정되어 있었으며 2002년 6월 법원-검찰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 (2) 2003년 3월, 본 단체에서 어린이 자연생태교육을 준비하던 중 원흥이 마을의 방죽에서 두꺼비들이 집단 산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로 원흥이 일대의 자연생태를 조사한 결과 청주에서는 마지막 남은 생태보고로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
- (3)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두꺼비 알과 올챙이 관찰, 원흥이 방죽의 자연생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 (4) 2003년 6월 4일, 산미분장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조직들과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총 46개 단체가 “원흥이 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두꺼비 서식지 보존운동(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운동)을 전개하였다.
- (5) 2003년 한 해 5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두꺼비 산란서식지인 원흥이 방죽일대를 방문하였으며 청주시민 4만 여명이 두꺼비 살리기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 (6) 2003년 12월 말,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와 충청북도는 청주시민들의 염원인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두꺼비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통과시켰다.
- (7) 이에 본 단체는 두꺼비 서식지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이동통로는 의미가 없으며 특히, 원흥이 방죽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법원, 검찰청사가 들어서게 되는 현재 계획 하에서는 원흥이 방죽조차 생태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 향후 지속적으로 두꺼비 서식지 보존(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8) 한국토지공사는 2월부터 나무 벌목을 시작으로 택지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꺼비가 내려와 알을 낳는 3월 초부터 새끼두꺼비가 되어 다시 구룡산으로 올라가는 5월 중순까지는 서식지와 원흥이 방죽 일대의 어떠한 개발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 (9) 깃대종인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운동은 토지공사와 자치단체의 환경파괴형 개발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전국 최초의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과정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나. 필요성

- (1)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 주된 운동으로 원흥이에서의 다양한 현장교육과 청주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어린이들에게는 택지개발 전의 원흥이 마을의 자연생태교육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 (3) 또한 도시개발이 파괴 위주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친화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청주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운동이 될 것이다.
- (4)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운동과 더불어 진행될 원흥사지 발굴보전운동은 직지의 고장 청주에 고인쇄문화의 뿌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5)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생명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며, 이는 토지공사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조사를 통한 원흥이 생태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원흥이 자연학교, 현장체험학습 연계 프로그램, 두꺼비 생태학교, 원흥이 두꺼비 축제는 두꺼비 서식지 보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2003년부터 진행된 시민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흥이 생태지도로 만든다.

나. 원흥이 자연학교와 현장체험학습

- (1) 두꺼비의 생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 짝짓기, 산란, 알, 올챙이, 새끼 두꺼비로 변화하는 과정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
- (2) 청주라는 도시 내에 마지막 남은 생태보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시킨다.
- (3) 주입식보다는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 자연에서 뛰어 놀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판을 만든다.
- (4) 교육 마무리 시간을 확보하여 두꺼비에게 엽서 쓰기, 현수막 그리기 등을 통해 교육 의미를 되새긴다.
- (5) 원흥이 자연학교는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을 통하여 진행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전교조와 각 학교,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 (6) 현장 교육진행 교사는 청주지역 생태교육 활동가들로 구성한다.
- (7) 현장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간 두꺼비 성장에 저해되는 교육은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고 관찰 데크 등의 안전탐방시설을 설치한다.

다. 두꺼비 생태학교

- (1) 교사들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파한다.
- (2) 생태교육의 범주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던 양서류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 (3) 개발과 환경파괴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사회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라. 원흥이 두꺼비 날

- (1) 청주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두꺼비들이 구룡산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 (2)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시 한번 의지를 모으는 날
- (3)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 (4) 원흥이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 (5) 친환경적인 행사로 진행한다.

마. 원흥이 생태지도 제작

- (1)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사된 원흥이의 생물 서식현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 (2) 택지개발도 변화될 원흥이 방죽의 모습을 담아낸다.
- (3) 깃대종 두꺼비의 한살이를 핵심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다.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가. 교육활동 내용

- (1) 원흥이 자연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주된 교육활동은 두꺼비의 한살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현장 공사 강행 등 다급한 외부 조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 (2) 교육자료로 원흥이 교육용 리플렛과 엽서를 제작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2) 각 시기별 두꺼비 생태교육 세부내용

▶ 두꺼비 알 관찰 시기

세 부 활동명	두꺼비와 아무르산개구리의 알의 비교 관찰. 방죽에 사는 수서곤충 관찰				
교육일시	3.20. 14:00~16:00	교육장소	원흥이방죽 주변	교육인원	39명
강사	성명	연숙자, 윤원숙		연락처	
	약력	연숙자 : 2기 자연안내자, 1기 숲해설가 2002년 상당산성 생태조사 참여, 교육활동 참여 윤원숙 : 3기 자연안내자, 3기 숲해설가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꺼비와 아무르산개구리의 알의 비교 관찰 ▷ 알주머니의 역할은? ▷ 원흥이 방죽이 썩지 않게 도와주는 생물은 무엇일까? ▷ 수서곤충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흥이 방죽에서는 어떤 수서곤충이 살고 있을까? - 물에 사는데 왜 날개가 있을까? - 수서곤충의 호흡방식 알아보기 - 수서곤충은 무엇을 먹고 살까? ▷ 3백년이 넘는 마을의 수호신 느티나무 할아버지 이야기 ▷ 직지와 원흥사에서 인쇄된 금강경 이야기 ▷ 자연놀이(먹이사슬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꺼비와 나는 먹이사슬에서 어느 위치일까? ▷ 원흥이의 소망을 담은 프래카드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 천에 아이들이 직접 두꺼비를 살리자는 바람 적기.. 				
준비물	천, 매직펜, 노끈, 돋보기		참고자료	자연관찰(교원)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	
평가	양서류의 알이 서로 다르다는 것, 다양한 수서곤충들을 보며 신기 해 했다. 먹이사슬 놀이를 통해 우리도 자연 속의 한 구성임을, 함께 살아가야 됨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원흥이의 소중함을 프래카드에 그려 넣음으로써 그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질 수 있었다.				

▶ 두꺼비 올챙이 시기

세 부 활동명	올챙이가 태어났어요.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교육일시	3.27. 14:00~16:00	교육장소	원흥이방죽 주변	교육인원	40명
강사	성명	김선영 신향숙		연락처	
	약력	김선영 : 1기 자연안내자, 상당산성 생태조사 참가, 교육경력 4년 신향숙 : 3기 자연안내자, 교육경력 2년			
교육내용	▷ 양서류 친구들이 많은 곳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 환경지표종으로서의 양서류의 역할 - 양서류와 인간과의 관계 인식 ▷ 두꺼비 올챙이 관찰 하기 - 움직임이 적어요. - 빨판이 있는 입을 풀에 대고 붙어 있어요. (먹이활동) ▷ 아무르산개구리 올챙이 관찰- 색, 행동특징을 관찰 해 볼까요? - 원흥이에 가장 먼저 알이 부화되는 아무르 산개구리 ▷ 도롱뇽 알 관찰하기 - 샘물이 솟아오르는 논 가장자리에 알을 낳았어요. - 알주머니의 모습이 순대처럼 생겼어요. - 옛날에는 알의 모습을 보고 장마나 가뭄을 짐작하기도 했지요. ▷ 양서류의 산란지의 특징 알아보기 ▷ 나만의 도감 만들기 - 오감을 통해 만나는 식물의 특징을 기록 해 보세요. ▷ 방죽 주변의 쓰레기 줍기				
준비물	도화지, 펜, 돋보기		참고자료	보리식물도감	
평가	양서류와 다른 여러 생물들이 많이 사는 이 곳은 환경오염이 적은 소중한 곳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곳임을 알려 주었다. 양서류의 종류에 따라 습성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두꺼비 올챙이 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쓰레기를 줍기를 함께 하였다. 흔히 보는 봄꽃을 자세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두꺼비 올챙이 시기

세 부 활동명	두꺼비 올챙이와 원흥이마을에서 볼 수 있는 새 관찰			
교육일시	4.3. 14:00~16:00	교육장소	원흥이방죽 주변	교육인원 36명
강사	성명	김은미 이천순	연락처	
	약력	김은미 : 2기 자연안내자, 숲해설가, 교육경력 2년 이천순 : 2기 자연안내자, 숲해설가, 상당산성 생태조사 참여 교육경력 3년		
교육내용	<p>▷ 두꺼비올챙이의 모습과 특성을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은색 피부, 서로 모여 있어요. - 두꺼비 올챙이 왜 모여서 이동할까요? <p>▷ 원흥이마을에서 볼 수 있는 새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챙이를 먹이로 하는 새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물총새의 먹이사냥 관찰하기 - 귀제비와 제비의 다른 점은? - 성대모사의 달인 때까지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 백로, 중대백로, 황로와 왜가리를 구별해 봅시다. <p>▷ 나무목걸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흥이에서 베어진 나무를 알맞은 두께로 자릅니다. - 사포를 이용해서 나무를 문지릅니다. - 두꺼비와 올챙이를 나무에 그려 목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p>▷ 자연물로 장승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돌, 나뭇가지, 풀 등)을 모아 나무에 붙여 만든다 - 천하대장군, 여장군 대신 원흥이 두꺼비를 써 어린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한다. 			
준비물	나무, 끈, 쌍안경, 네임펜	참고자료	한국의 새	
평가	두꺼비의 한살이와 올챙이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원흥이마을에 찾아오는 새들을 관찰하고 특성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생물이 사는 원흥이마을을 보존해야 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나무에 두꺼비그림을 그리며 두꺼비의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였다.			

▶ 두꺼비 올챙이 시기

세 부 활동명	두꺼비 올챙이와 아무르산개구리 올챙이 비교, 계곡생물 관찰			
교육일시	4.10 14:00~16:00	교육장소	원흥이방죽 주변	교육인원 38
강사	성명	신수진 신준수	연락처	
	약력	신수진 : 1기 자연안내자, 동화읽는 어른모임, 교육경력 3년 신준수 : 2기 자연안내자, 숲해설가, 교육경력 3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사람들의 살던 흔적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남3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 답사하기 ▷ 두꺼비올챙이와 아무르산개구리 올챙이의 비교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올챙이들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 두꺼비 전래동화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꺼비나 개구리와 관련된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 계곡생물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재, 플라나리아, 옆새우, 하루살이 유충관찰 -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계곡생물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 물속에 있던 마름씨앗 관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고리를 만들어 실에 매단 후 방죽에 던져 건져 올린다. - 예전에는 마름 씨앗을 먹었습니다. ▷ 내 나무에게 편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러져 가는 나무를 우리가 지켜요. - 원흥이는 청주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보고예요. 			
준비물	네임펜, 천	참고자료	한국의 곤충 보리 곤충도감	
평가	원흥이마을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공간임을 알게 하고, 생물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물의 맑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서로 다른 올챙이들의 특성과 생태를 배우고 특이한 모습의 마름씨앗을 관찰해 보았다. 주변에 벌목이 진행됨에 따라 나무의 소중함과 나무가 있어야 두꺼비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나무에게 편지쓰기] 라는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두꺼비 올챙이 시기

세 부 활동명	두꺼비 한살이 배우기와 올챙이 관찰, 두꺼비그림책 만들기			
교육일시	4.17 14:00~16:00	교육장소	원흥이방죽 주변	교육인원 40명
강사	성명	이상현, 연숙자	연락처	043-900-2286
	약력	이상현 : 1기 자연안내자, 숲해설가, 자연안내자모임 회장(2003년) 연숙자 : 2기 자연안내자, 숲해설가, 교육경력 4년		
교육내용	<p>▷ 노래를 통한 두꺼비 한살이와 두꺼비의 생김새 배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챙이 노래를 원흥이 상황으로 개조하여 부른다. 구룡산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p>▷ 두꺼비 올챙이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모여서 다닐까? - 어떤 먹이를 먹을까? - 올챙이의 천적은 누구일까? (가물치가 두꺼비 올챙이를 잡아 먹어요!) <p>▷ 먹이사슬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이사슬에서 두꺼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p>▷ 두꺼비그림책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흥이 두꺼비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책을 만들어요. - 두꺼비 한살이 사진으로 그림을 구성해요. 			
준비물	표지, 두꺼비, 올챙이 사진, 사인펜	참고자료	폴빛을 닮은 아이들 원흥이 방죽 두꺼비	
평가	<p>노래를 통해 두꺼비의 생김새나 특성을 재미있게 알 수 배울 수 있게 되었다.</p> <p>올챙이를 자세히 관찰하고 먹이사슬놀이를 통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미리 준비한 두꺼비나 올챙이 사진 팸플릿을 이용해서 원흥이 두꺼비에 대한 그림책을 꾸며 보며 원흥이 두꺼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p>			

가. 원흥이 자연학교

(1) 원흥이 자연학교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주지역 학생들을 모집하여 원흥이 방죽 현장에서 진행하였다.

(2) 참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www.wonheung.or.kr)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3) 원흥이 자연학교 교육진행 결과 (교육회수 : 10회, 교육인원 : 409명)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3/6 (토) 14:00 ~ 16:00	우리의 친구 두꺼비가 내려와요	▶ 미실시 : 로 진행 못함	청주지역 폭설
3/13 (토) 14:00 ~ 16:00	두꺼비와 개구리 우리는 양서류	▶ 양서류의 생태적 특성 관찰 - 두꺼비와 도롱뇽, 개구리 우리는 양서류 ▶ 봄에 피는 들꽃을 세밀화로 그리기	45명 참가
3/20 (토) 14:00 ~ 16:00	두꺼비는 긴 줄에 알을 낳아요	▶ 두꺼비 알 관찰 - 두꺼비 알과 개구리 알과 비교 ▶ 방죽에 사는 수서곤충 관찰	39명 참가
3/27 (토) 14:00 ~ 16:00	올챙이가 되었어요(1)	▶ 두꺼비 올챙이 관찰 - 개구리 올챙이와 비교 ▶ 원흥이 방죽 주변의 봄꽃 관찰	40명 참가
4/3 (토) 14:00 ~ 16:00	올챙이가 되었어요(2)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원흥이에 찾아오는 새 관찰 ▶ 나무목걸이 만들기	36명 참가
4/10 (토) 14:00 ~ 16:00	올챙이가 되었어요(3)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두꺼비 살리기 작은 현수막 그림	38명 참가
4/17 (토) 14:00 ~ 16:00	우리들은 다함께 춤 추어요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두꺼비를 살려주세요’ 엽서 씬	40명 참가
4/24 (토) 14:00 ~ 16:00	뒷다리가 나왔네요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뒷다리) ▶ 원흥이 잠자리 관찰	42명 참가
5/1 (토) 14:00 ~ 16:00	앞다리도 나왔네요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 앞다리도 나오네요. ▶ 원흥이의 나비 관찰하기	39명 참가
5/8 (토) 14:00 ~ 16:00	꼬리가 줄어들어요!	▶ 애기 두꺼비 관찰 (대이동 준비)	30명 참가
5/15 (토) 14:00 ~ 16:00	떠날 준비를 할까	▶ 애기 두꺼비 관찰 (대이동) ▶ 원흥이 1급수 지표종 관찰(가재, 엽새우)	60명 참가
5/22 (토)	구룡산으로의 험난한 길을 떠나자	▶ 두꺼비 이동모습 관찰 ▶ “두꺼비를 살려주세요!” 엽서 쓰기 ▶ 두꺼비 이동길 따라 금줄 치기	두꺼비 이동 완료
5/29 (토)	원흥이는 청주의 희망	▶ 청주의 희망 원흥이 생태공원 만들기	두꺼비 이동 완료

나. 원흥이 현장체험학습

(1) 원흥이 현장체험학습은 각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 두꺼비 탐방축제를 알리고 탐방축제 기간 동안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청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장체험학습 교육진행 결과 (57회 교육, 교육인원 3923명)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3/11 (수)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애들아 뭐하니 어린이집)	▶ 두꺼비 알 관찰 - 두꺼비 알과 개구리 알과 비교	20명 참가
3/19 (금) 15:00 ~ 17:00	현장체험학습 (서부종합복지관)	▶ 양서류의 생태적 특성 관찰 - 두꺼비와 도롱뇽, 개구리 우리는 양서류	40명 참가
3/25 (목)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금천초 5-9)	▶ 양서류 알 관찰 - 두꺼비 알, 개구리 알, 도롱뇽 알 비교	35명 참가
3/26 (금) 15:00 ~ 17:00	현장체험학습 (용암종합사회복지관)	▶ 양서류 알 관찰 - 두꺼비 알, 개구리 알, 도롱뇽 알 비교	50명 참가
3/28 (일) 11: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신갈러리 미술관)	▶ 두꺼비와 개구리 올챙이 비교 ▶ 원흥이 방죽 주변의 봄꽃 관찰	40명 참가
4/3 (토)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흥덕초 5-2)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원흥이에 찾아오는 새 관찰	35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형석중 1학년)	"	8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영운동 천주교)	"	50명 참가
4/8 (목)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용암초 4-1,2,3)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두꺼비 살리기 작은 현수막 그림	12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도화어린이집)	"	6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애들아 뭐하니 어린이집)	"	30명 참가
4/9 (금)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용암초 4-4,5,6)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두꺼비 살리기 작은 현수막 그림	120명 참가
4/10(토)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한가정 어린이집)	"	30명 참가
4/10 (토) 14:00 ~ 16:00	원흥이 생태안내 (한가정어린이)	"	60명 참가
4/10 (토) 14:00 ~ 15:00	원흥이 생태안내 (스카우트 영상반)	"	40명 참가
4/13 (화)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에림어린이집)	▶ 두꺼비 올챙이 생태 관찰 ▶ ‘두꺼비를 살려주세요’ 엽서 씬	80명 참가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	원흥이 생태안내 (책이좋은아이들)	"	40명 참가
4/16 (금)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수곡초 3-8/4-5)	"	71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충북고 1학년)	"	30명 참가
4/16 (금) 15:00 ~ 17:00	원흥이 생태안내 (서부종합복지관)	"	40명 참가
4/17 (토) 14:00 ~ 16:00	현장체험학습 (전산정보고 환경반)	"	15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원평중 1학년)	"	3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선재학원)	"	8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충북여성민우회)	"	4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칠성초 외사분교)	"	1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청주탐사대)	"	6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책이좋은 아이들)	생태그림책 만들기	70명 참가
4/20 (화)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사직유치원)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뒷다리) ▶ 원흥이 잠자리 관찰	8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새칭주미술학원)	"	30명 참가
4/21 (수)	원흥이 생태안내 (새칭주미술학원)	"	3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동산교회 유치원)	"	76명 참가
4/24 (토)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수곡초 2학년)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뒷다리) ▶ 원흥이 잠자리 관찰	25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원평중 1학년)	"	2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충북고 2학년)	"	3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흥덕초 6-4)	"	36명 참가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4/27 (화)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청운중 3학년)	"	350명 참가
4/28 (수)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파스텔 미술학원)	"	50명 참가
"	현장체험학습 (한솔초 5학년)	"	250명 참가
4/29 (목)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아방미술학원)	"	30명 참가
4/30 (금)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푸른솔미술학원)	"	45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슬기어린이집)	"	40명 참가
5/2 (일)	원흥이 생태안내 (수원공동육아)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 앞다리도 나오네요. ▶ 원흥이의 나비 관찰하기	40명 참가
5/4 (화)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거성유치원)	"	6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지역사회협의회)	"	25명 참가
5/5 (수)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영운동 천주교회)	"	50명 참가
5/6 (목)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한국교원대 병설유치원)	"	25명 참가
5/7 (금)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가경초 3,6학년)	"	480명 참가
5/8 (토) ~ 9 (일)	생명문화대장정 (어린이 기자단)	▶ 애기 두꺼비 관찰 (대이동 준비)	37명 참가
5/10 (월)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은물어린이집)	"	80명 참가
5/11 (화)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청주교대)	"	12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꼬마개비어린이집)	"	45명 참가
5/11 (화)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아이세상어린이집)	▶ 애기 두꺼비 관찰 (대이동 준비)	30명 참가
"	원흥이 생태안내 (큰산어린이집)	"	20명 참가
5/12 (수)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그림터 미술학원)	"	90명 참가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	원흥이 생태안내 (충청어린이집)	"	160명 참가
6/4 (금) 10:00 ~ 12:00	원흥이 생태안내 (개신그린 미술학원)	▶ 두꺼비가 떠난 원흥이 방죽 일대의 자연생태 관찰	50명 참가
6/5 (토)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청주시청소년수련원)	"	35명 참가
6/9 (수) 10:00 ~ 12:00	현장체험학습 (새터초등학교)	"	39명 참가

다. 교사와 청주시민을 위한 두꺼비 생태학교

(1) 두꺼비 생태학교는 생명·생태사상에 대한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며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운동이 갖는 생태적, 운동적 의미를 확산하는 자리였다.

일시	계획내용	실행내용	비고
4/7 (수)	수경스님	▶ 수경스님께서 탁발 순례 중이어서 문정현 신부님의 생명기도회로 진행 - 4월 1일, 10:00 ~ 12:00	일정조정 (7→1일로) 강사대체
4/15 (목)	박병상 (꽃꽃세상 대표)	▶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양서류와 우리 인간의 관계	일정조정 (14→15일로)
4/21 (수)	박시룡 (한국교원대 교수)	▶ 일정조정의 어려움으로 계획 변경 - 4월 29일, 충북대 최상일 박사 강의 진행	원흥이 상황 급박
4/28 (수)	지울스님 (천성산 대책위원회)	▶ 미 실시 - 추후 10월 16일 원흥이 현장 방문 - 천성산 도롱뇽과 생명운동에 관한 강의 진행 (참여연대 강당)	지울스님 천성산 농성중



문정현 신부님의 생명기도회



박병상 박사의 소견발표

라. 원흥이 두꺼비 날 행사

(1) 원흥이 두꺼비의 날 행사는 하루로 계획하였다가 원흥이 운동의 해결을 위해 대중적인 시민참여의 장으로 확대하여 진행되었다.

일시	계획내용 (세부사업별)	실행내용	비고
5/22 14:00 ~ 21:00	원흥이 두꺼비의 날 행사	▶ 하루 행사를 4회로 나누어 진행함 3/1 원흥이 생명의 금줄치기 4/10 원흥이 작은 음악회 5/22 원흥이 살리기 촛불한마당 5/30 청주시민 원흥이 꺼안기 행사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일정과 방식 변경



3.1 원흥이 생명의 금줄치기



4.10 원흥이 작은 음악회



4.10 원흥이 작은 음악회



5.30 원흥이 꺼안기 행사

마. 원흥이 생태지도 제작

- (1) 원흥이의 지금 모습은 방죽과 생태통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흙으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서 원흥이의 많은 생명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 (2) 두꺼비를 살릴 수 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들은 원흥이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3) 이에 2003년 봄부터 2004년 12월까지 원흥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조사한 결과로 생태지도를 만들어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 (4) 원흥이 생태지도는 2000부를 제작하여 청주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



원흥이 생명 · 사랑 그리고 희망

날 온들의 새싹!!!
당대까지 새싹!!!

원흥이의 중매쟁이	원흥이를 수놓은 들꽃	생명의 날갯짓
<p>물고기 어류 4종(물고기 2종, 민물고기 2종) 어류 4종(물고기 2종, 민물고기 2종) 어류 4종(물고기 2종, 민물고기 2종)</p>	<p>지금 온 개천 주변 옛날 모습과 달리 사라진 개천의 모습과 민물고기를 보존해 달라는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옛날 민물고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참 아름다운 개천은 개천의 생명들이 여러 생명들을 키워주는 곳입니다.</p>

두꺼비의 산란여행

그렇게 봄이 되니

봄이 되면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두꺼비는 산란을 준비합니다.

원흥이방죽 친구들



원흥이방죽 친구들

이 생태도는 원흥이방죽의 다양한 생물과 환경을 보여줍니다. 방죽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으며, 물속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생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죽 주변에는 다양한 조류와 포유류도 살고 있습니다.

오롱오롱 어울려 사는 친구

반복의 가치 못헤
새들의 노래와 외치는 소리까지
하루 다른 청둥 오리 새끼의 삶과 있는
살아가는 모습이

원흥이 방죽 뒤, 작은 세상 엿보기

사립동해방 물고기들의 바닷속 작은 동물들이여
정말의 물고기야
요즘엔 물고기 죽은 건은 생명이
재활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원흥이 사랑이 이야기

**생명이 그 어루만짐
천둥이 기록
달과 온 나라를 휘감아 끌어오
이름을 이야기.**

5. 평가

가. 원흥이 자연학교와 현장체험학습

- (1)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원흥이 자연학교는 초창기 원흥이 운동을 청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중요한 교육기회였다.
- (2) 두꺼비의 집단 산란지로서 수많은 올챙이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애기 두꺼비의 대이동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훌륭한 교육기회가 되었다.
- (3) 이에 따라 올해 원흥이 자연학교는 작년 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으며, 이제는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원흥이 방죽을 찾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자연스럽게 청주 시민들에게는 원흥이 생태공원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 (4) 또한 각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청주에서는 새로운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었다.
- (5) 도시 중심에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남아있다는 것에 청주시민들은 즐겁고 행복하였다. 그러나 원흥이 현장 공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사 관계자들이 방죽 출입 자체를 막아 6월 이후로는 자유로운 자연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 (6) 결국 원흥이 자연학교는 준비된 내용으로 현장실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었지만 각급 학교에서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다수의 많은 어린이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꺼비 생태 중심의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 (7) 6월 이후에도 몇몇 어린이집 등은 구룡산을 타고 넘어서 원흥이 방죽까지 들어오는 등 원흥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재의 상생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 (8) 2005년도에도 두꺼비 탐방축제 등을 열 것이며, 어린이들의 현장교육을 위해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구룡산 탐방로를 개발할 것이다.

나. 교사와 시민을 위한 두꺼비 생태학교

- (1) 두꺼비 생태학교는 강사를 모시는데 어려움이 겪었다. 수경스님께서는 탁발순례 중이셨고, 지을 스님께서는 천성산 농성 중이었다.
- (2) 원흥이 두꺼비를 계기로 시민의 생명, 생태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거대담론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으나 현장 공사 강행과 저지라는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3) 그러나 지울스님께서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원흥이를 방문하셔서 활동가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안내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다. 원흥이 두꺼비의 날 행사

(1) 원흥이 두꺼비의 날 행사는 2월부터 계속되는 토지공사의 공사 강행으로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2) 3월 1일, 생명의 금줄치기는 산란을 위해 내려온 두꺼비들의 순산과 더 이상 원흥이의 생태파괴를 그만두고 생명의 어머니인 방죽을 지키자는 어린이, 교사, 어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 이후 원흥이 운동은 어린이와 자원교사 어머니, 그리고 학교 교사 등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3) 4월 10일, 원흥이 작은 음악회는 참당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4월9일 새벽 토지공사는 용역인부를 동원하여 출입자체를 막아 놓고는 두꺼비 주요 서식지인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한 벌목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자 했던 장소를 굴삭기로 완전히 파헤쳐 놓아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몸으로 공사를 막고 다음날 아침부터 원흥이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트랙터로 행사장을 말끔히 재정비하고 예정대로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로 힘겹게 현장을 지키며 싸워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원흥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심어 주었다.

(4) 5월 22일, 원흥이 살리기 촛불한마당은 원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500여명의 청주시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철당간으로 모여 들었다. 이날 행사는 원흥이에서 토지공사 총복지사까지 삼보일배를 한 후 성직자들의 단식농성 중간에 진행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나갔다.

(5) 5월 30일, 청주시민 원흥이 껴안기 행사는 이른 새벽 6시에 원흥이 방죽으로 700여명의 청주시민이 모인 극적인 날이었다. 즉, 새벽 6시 공사가 강행되더라도 청주시민들은 기꺼이 이곳 원흥이 방죽을 지켜낼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토지공사 측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라. 원흥이 생태지도 제작

(1) 원흥이 생태지도는 택지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생명들의 숨결을 담아내었다. 이후 이 생태지도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생태지도를 통해 우리는 원흥이에서 개발 전에 공존했던 생물들과 개발 후에 살아갈 생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3) 또한 택지개발이 완료된 원흥이 마을에 입주하여 살게 될 청주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금 집행내역서

항 목	금 액	집행근거	비고
인건비(강사료)	300,000원	두꺼비 생태학교 : 2회×1명×150,000원 = 300,000원	
인쇄비	5,000,000원	교육용 리플렛(5천부),엽서(1000세트) : 2,000,000원 두꺼비탐방축제 포스터(1천부) : 800,000원 원흥이 생태지도(2000부) : 2,000,000원 최종보고서 인쇄비 : 200,000원	
식대	209,500원	교사회의 식대(3.12) 54,000원 교사회의 식대(4.2) 63,000원 교사회의 식대 (5.7) 58,500원 행사 준비팀 식대(4.22) 34,000원	
소모품비	730,500원	현수막(11장×30,000원) 330,000원 내 나무 친구되기 천(4.5) 200,000원 사무용품(편지봉투외) 71,000원 복사비 106,000원 철물·전기용품 23,500원	
사업추진비	1,760,000원	두꺼비의 날 음향 및 조명 (4.10) : 300,000원 나무목걸이 제작용 나무 : 500개×1,000원=500,000원 원흥이 티 제작(5.1) : 360,000원 사진전 출력비 : 600,000원	
총 액	8,00,000원		

※ 총집행내역 일람표를 작성한 뒤 개별집행 건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함.

※ 예산편성 시 현장교육 강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강사들이 받지 않고 원흥이 활동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 타 항목에 추가 지출하게 됨

7. 교육 관련 자료

가. 교육용 리플렛 (1종 8면)



걸장과 표지

왜 양서류가 줄어든가요?



환경지표동물

양서류는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주변이 오염되면 오염물질을 그대로 흡수하지요. 개구리, 두꺼비들은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먹이 속에 있던 독성물질이 몸 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양서류가 줄어들고 기형 발생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생명그물망

양서류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풀, 나무, 새, 곤충, 양서류 등 수많은 생물들은 서로 어울려서 생명의 그물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면 결국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체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문화적 가치

바다에서 태어난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생긴 변화가 많습니다. 양서류에는 척추동물이 육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변하는 모습(눈꺼풀, 고막, 율음주머니, 다리, 손, 갈비뼈, 폐 등)이 남아있습니다. 속담, 수수께끼 등 민속문화에 담겨있는 공생적 삶의 지혜가 많습니다. 양서류를 보기 힘들어질수록 이런 전통문화유산들도 사라져갑니다.

두꺼비

두꺼비의 사랑- 짝짓기

수컷이 알갱이의 등에 얹혀 거드름이름 꼭 안아줍니다. 수컷은 앞발가락의 엄지에 돌기가 나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꺼비가 알을 낳았다!

경칩 무렵, 두꺼비는 항상 태어난 곳에 돌아와 무리를 지어 알을 낳지요. 알 길이가 10m에 이르며, 개수는 2천5백~8천 개 정도랍니다.

올챙이가 태어났어요

알이 올챙이로 변하는 기간은 10~12일이래요. 갓 태어난 올챙이는 일 주일이 지난 뒤에야 해감이나 이끼 등을 먹기 시작합니다.

뒷다리가 나왔어요

부화 후 약 한 달이 지나면 뒷다리가 나와요.

앞다리로 나왔어요

부화 후 40일 정도가 지나면 앞다리가 나오지요. 물 속에서만 지내던 올챙이가 입을 물 위로 내놓고 호흡을 합니다.

꼬리가 짧아져요

부화 후 50일 정도가 되면 꼬리가 적아지기 시작합니다. 꼬리는 물 쪽으로 스며듭니다. 꼬리가 짧아지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아기 두꺼비가 되었어요!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완전한 두꺼비가 되지요. 땅이 축축해지면 한꺼번에 산으로 올라옵니다.

양서류의 중요성과 두꺼비의 한살이

원흥이 마을 식구들



방울살잡자리



도미발



배저리잠자리



왕갯거미



가재



물중새



애반디뱀이



위잉

원흥이를 살려주세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개발은 반드시 는앞의 경제적 가치만 내세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택지개발은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꺼비를 지키려면

원흥이방죽을 살려야 합니다. 방죽은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두꺼비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알을 낳습니다. 알과 올챙이는 방죽에서 몸과 산소를 얻습니다. 방죽으로 흘러드는 물과 흙은 물고기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무기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구룡산 서식지를 살려야 합니다. 아기 두꺼비는 방죽을 떠나 가까운 구룡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가까운 일생을 방죽과 산을 오가며 살기 때문에 서식지가 훼손되면 두꺼비가 살 수 없습니다. 방죽과 산을 연결하는 통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 7~8부 능선까지 파헤치는데 두꺼비가 어디에서 살아가려 말입니까?

연구와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방죽과 산 주변의 생물다양성과 여러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많은 생물이 드러난 것은, 기존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로

원흥이는 수서생물, 곤충,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두루 있는 보기 드문 곳입니다. 숲을 그대로 두면 인공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두꺼비 서식지를 남겨두고 개발해도 충분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미래를 위한 개발이어야 합니다. 기계기에 두꺼비가 사는 곳, 사람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정수 산방 뉴타운은 자연환경, 투자환경이 천하제일” 이라고 선전하는 토지공사! 지을가능한 도시 평지에서 1억을 건 건물에서, 원흥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은연 중언해야 합니다.

원흥이방죽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원흥이 마을의 친구들과 원흥이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



원흥이 탐방 프로그램

원흥이 자연학교

참가비 : 무료

날짜	프로그램	사업내용
3.20.(토)	긴 줄에 알을 낳아요	▶ 두꺼비 알 관찰 - 두꺼비 알과 개구리 알 비교 ▶ 밭곳에 사는 수서곤충을 관찰합니다
3.27.(토)	올챙이가 되었어요(1)	▶ 두꺼비 올챙이 관찰 - 개구리 올챙이와 비교하기 ▶ 원흥이 방죽 주변의 밤꽃 관찰하기
4.3.(토)	올챙이가 되었어요(2)	▶ 두꺼비 올챙이 관찰 - 올챙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 원흥이에 찾아오는 새 관찰하기
4.10.(토)	올챙이가 되었어요(3)	▶ 두꺼비 올챙이 관찰 - 올챙이는 어떻게 숨을 쉰까요? ▶ 두꺼비 살리기 현수막 만들기
4.17.(토)	다항계 흙을 숨여요	▶ 두꺼비 올챙이 관찰 - 개구리와 달리 집단생활을 하는 두꺼비 올챙이 ▶ 원흥이 방죽 생태지도 그리기
4.24.(토)	뱀다리가 나왔네요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 뱀다리가 언제 나오는지 ▶ 원흥이 삼지교 관찰하기
5.1.(토)	말다리도 나왔네요	▶ 두꺼비 올챙이 성장과정 관찰 - 말다리도 나오네요 ▶ 원흥이 나뉘 관찰하기
5.8.(토)	고리가 붙어붙어어요	▶ 아기 두꺼비가 되어가기 - 고리가 붙어붙면서 몸이 작아지네요 ▶ 영양을 보충해야 안전한 길을 떠나지
5.15.(토)	띠낀 준비를 할까	▶ 아기 두꺼비 관찰 - 몸집, 그늘에 어떻게 모여 있네요 ▶ 울음소리 듣고 기차와 인사수 관찰하기
5.22.(토)	구룡산으로 떠나자	▶ 두꺼비 이동 모습 관찰/우울목이와 새들의 위협 ▶ “두꺼비를 살려주세요!” 알서 쓰기 ▶ 두꺼비 이동길 따라 금줄 치기
5.29.(토)	원흥이는 청주의 희망	▶ 청주의 희망 원흥이 생태교원 만들기

원흥이 두꺼비축제

원흥이 현장체험학습

- 두꺼비의 신원부터 올챙이, 새끼 두꺼비로 이어지는 생태흐름에 맞추어 원흥이 자연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 3월 8일~5월 28일까지 주 2회씩
- 인원별 가능한 1학년 정도로 제한

원흥이 두꺼비날

기간 : 2004년 5월 1(토) ~ 29(일)
- 원흥이 생태탐방 : 두꺼비 대이동 관찰
- 원흥이 살리기 현수막 그리기 / 두꺼비 백일장
- 두꺼비 서식지 보존 금줄치기
- 두꺼비 살리기 작은 음악회

교사와 학부모님을 위한 두꺼비 생태학교

- 4월 7일부터 28일까지
-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예정)



행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참가신청 : 043) 292-3429(원장) 256-3429(생태교육연구소 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nheung.or.kr>

원흥이 자연학교 및 두꺼비의 날 안내

나. 교육 활동 자료



현장체험학습: 수곡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 하이닉스반도체 직원 자녀



현장체험학습: 어린이집 (올챙이 관찰)



현장체험학습 : 애기두꺼비 이동 관찰



원흥이자연학교: 나무목걸이 만들기



원흥이자연학교 : 흙피리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나의 나무친구 만들기



원흥이자연학교: 화전만들기



원흥이자연학교: 자연물로 장승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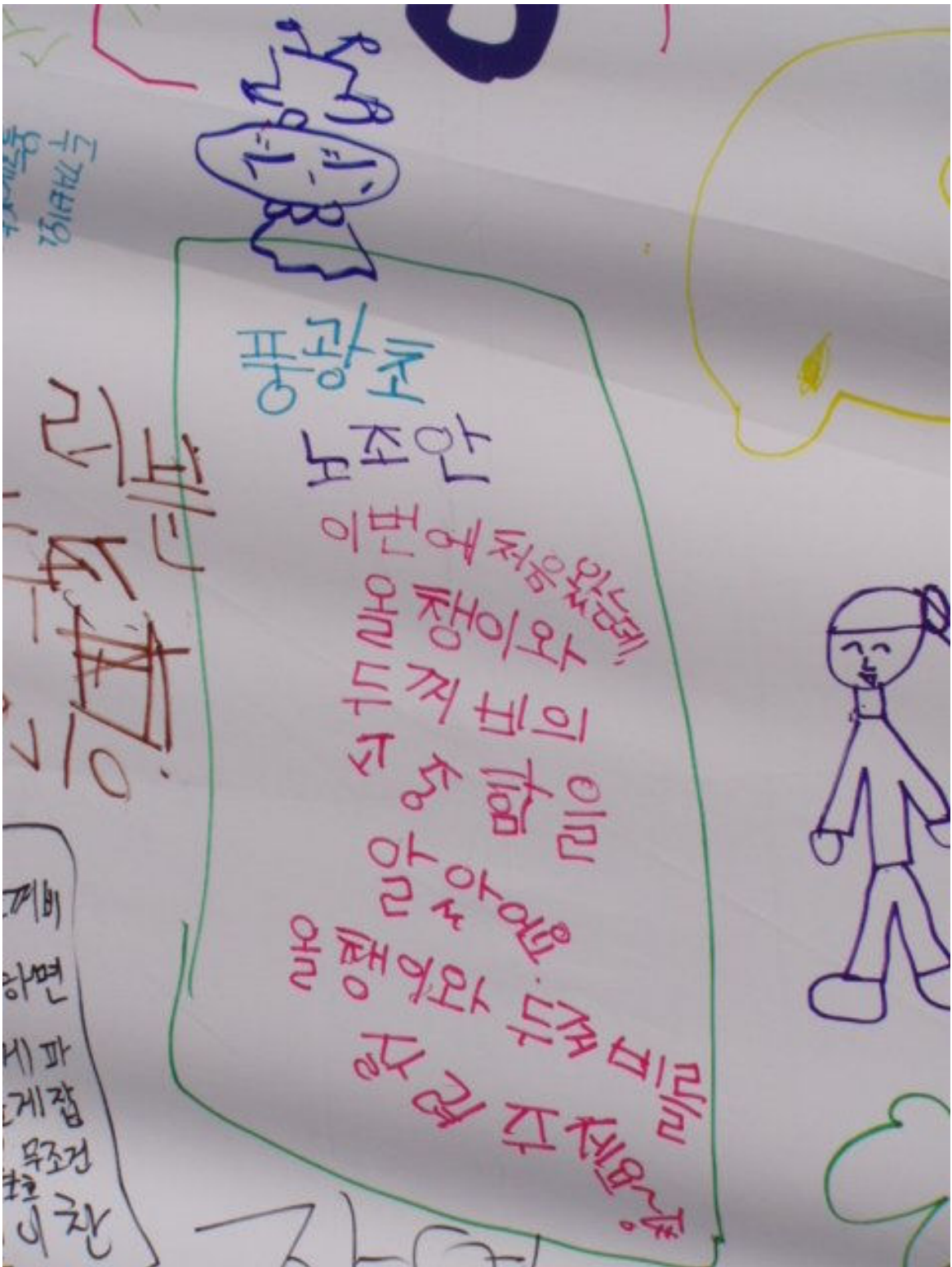
원흥이자연학교 : 함께 만든 장승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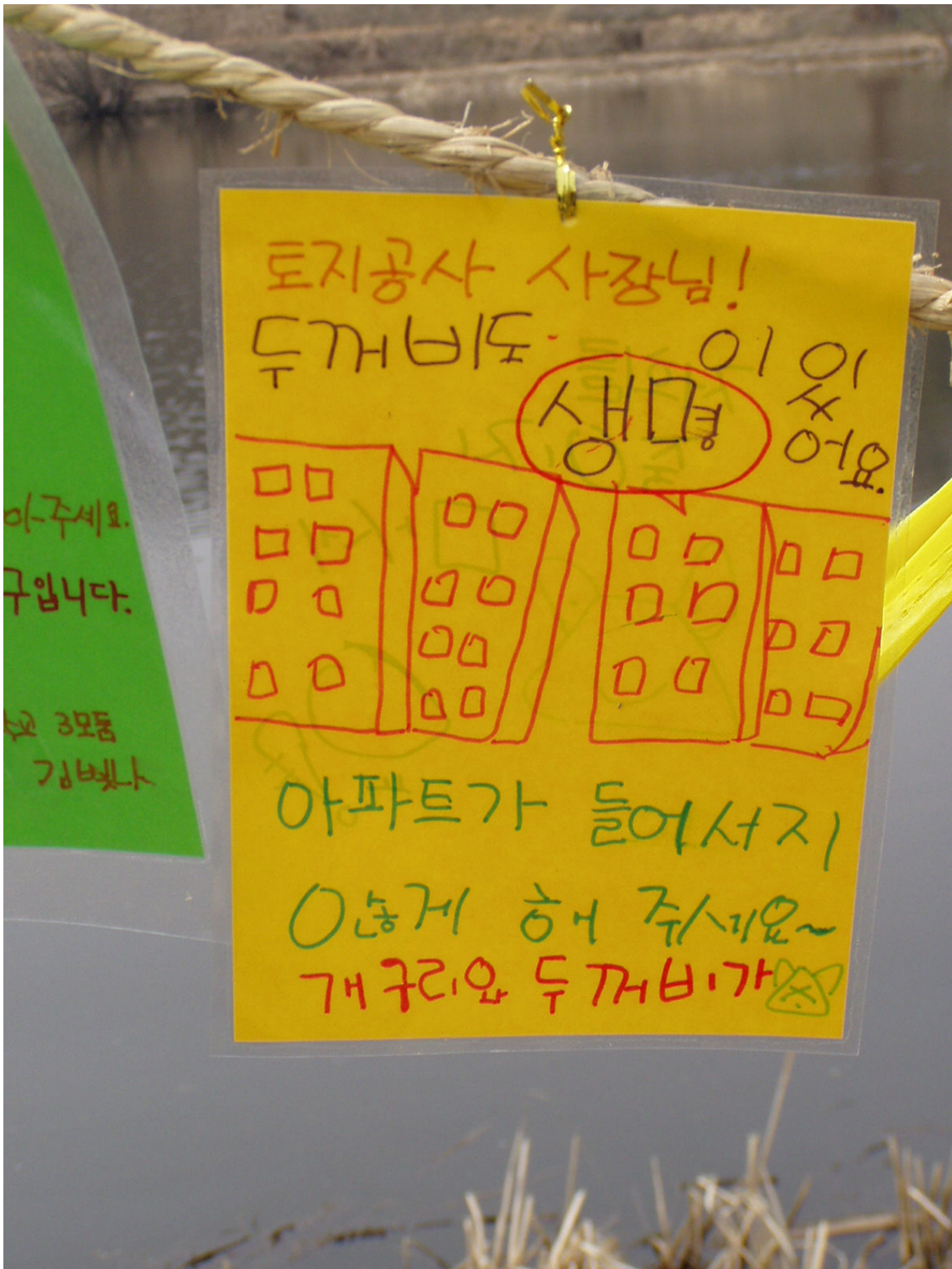
원흥이자연학교 : 들풀 관찰하기



원흥이자연학교: 아이들이 만든 현수막



원흥이 자연학교 : 현수막에 쓴 아이들의 소망 “두꺼비를 살려주세요!”



원흥이 자연학교 : 토지공사 사장님께 보내는 엽서



원흥이자연학교: 자연물로 만들기 (얼굴)



원흥이자연학교: 자연물로 만들기(나무)

상생의 실험대, '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

I. 운동의 개요와 목적

1. 운동개요



청주산남3지구 토지이용계획도(2002. 9.)



청주산남3지구 원흥이마을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가 청주시 산남동, 분평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1,096,676㎡(33만2천평)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이다. 1994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2년 9월 14일 개발계획 승인(변경), 2003년 12월 29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4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0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은 2003년 3월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4일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어머니자원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탐방교육 등 자발적 참여방식을 통한 교육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토지공사는 생태이동통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실효성 없는 두꺼비보전대책을 수립하고는 대화를 중단하였다.

착공을 앞둔 2004년 초 원흥이대책위는 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원흥이운동의 목표는 33만2천평의 개발면적 중 두꺼비 핵심서식지 1~2만여평을 보전(녹지대토 방식)하므로써 인근 공원(구룡산 일대)와 연계하여 40만평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운동역량을 집중하고, 공사저지활동을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기습적 공사착공에 대한 현장저지활동을 시작으로 원흥이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7대 총선대응, 탐방축제, 상생의 대안 제시, 삼보일배, 토지공사 점거농성, 성직자 단식농성, 시민동원령, 법원검찰청 앞 청주시민 60만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매우 긴박하게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운동역량 대부분이 합류하였으며, 5월 13일 원흥이대책위원회를 ‘원흥이생명평화회의’로 확대, 개편하였다. 8월 초 ‘도지사역할 검증프로그램’을 통하여 토지공사와의 3자 실무협의를 성사시켰으며, 9월 현재 막바지 타결국면을 도출하기 위하여 ‘반혁신 충북도민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운동목표



새끼두꺼비 대이동(2003. 5.) 두꺼비의 짝짓기(2004. 3.)



두꺼비 올챙이(2004. 4.)

1) 산남3지구 원흥이마을 두꺼비집단서식지의 보전

원흥이운동의 1차적인 목적은 두꺼비 집단서식지의 보전이다. 전체 33만2천평의 택지개발지구 중 7-8만평 가량이 주요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중 1-2만평 가량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란지인 원흥이방죽과 서식지인 구룡산 자락을 연결하는 부채꼴 모양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두꺼비 서식지와 구룡산 일대를 연계한 40만평 가량의 생태공원 조성

산남3지구 주변 구룡산 일대는 청주대공원이라 명명된 38만평의 녹지가 보전되어 있다. 원흥이방죽 주변 습지생태계 1~2만평을 확보할 경우 주변 산림생태계과 연계한 40만평 가량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생태공원의 핵심요소는 ‘두꺼비 바이오톱’이다.

3) 택지개발사업 방식 및 토지공사 개혁의 전환점 마련

현재 전국에는 수백여 건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부분 인위적이며 획일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써 생태계 파괴 및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흥이운동을 통하여 택지개발 방식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나아가 공기업이자 독점적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운영체계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대합의를 통한 상생의 실현, 사회갈등해소의 선례를 창출

사람과 자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상생은 생명운동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원흥이운동은 또 하나의 범주에서 상생과 대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승인권자인 충청북도, 운동주체인 시민사회 즉 대립과 갈등의 당사자 간의 대합의를 통한 상생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선례를 창출하고자 한다.

원흥마을의 특징

1. 청주의 마지막 도심 농촌마을

원흥마을은 청주 남서부 산남동에 위치한 마을이다. 뒤로 구룡산 자락이 말굽처럼 둘러싸 있고 앞으로는 30만평에 이르는 들판이 펼쳐진다. 구룡산 아래 처음으로 물이 모이는 곳이 원흥이방죽이다. 2,000평 가량의 방죽이 이 마을의 수원이다. 북쪽에는 충북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동, 남, 서쪽의 수곡동, 분평동, 개신동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주택단지이다. 한남금북정맥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산줄기의 맨 끝자락에 있는 구룡산은 사방이 택지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만평 가량 보전녹지로 남아있다. 그 속에 자리잡은 원흥마을에서 2층 이상의 건물은 볼 수 없지만 고라니가 뛰어 다니는 것은 볼 수 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마을이며, 생물들이 안심하고 살고 있는 마을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험할 수 도심의 마지막 농촌마을이다.

2. 천국을 만난 두꺼비들의 향연

원흥마을은 두꺼비의 천국이다. 설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복을 가져다 주거나 위기를 극복해 준다는 두꺼비가 아주 많다. 3월초 동면에서 깨어난 수천마리의 두꺼비들이 산란지인 원흥이방죽으로 모여든다. 두꺼비는 반드시 태어난 곳에 다시 찾아와 알을 낳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삭인 암두꺼비를 차지하기 위한 숫두꺼비들의 경합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짝짓기에 성공한 쌍은 방죽 가장자리 수초지대에 염주 같은 알을 쏟아 낸다. 알에서 깨어난 십여만 마리의 올챙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 4월 중순 경 다리가 나오고, 신록이 깊어지는 5월 축축히 비가 내린 어느날 꼬리를 떼어버린 새끼두꺼비들이 일제히 땅으로 올라온다. 물 속 생활을 정리하고 어미들이 살고 있는 구룡산 자락을 향하여 이동을 시작한다. 청주지역은 두꺼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그러나 원흥이방죽과 같은 대규모 서식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방죽 주변은 능선부에 약수터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곳이다. 개발에 밀려 마지막 모여든 곳이 다행히 천혜의 서식요건을 갖춘 두꺼비의 요람이었던 것이다.

3. 습지와 산림이 조화를 이룬 도심 생태보고

원흥이마을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KBS 환경스페셜 취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맹꽁이(멸종위기 보호 동식물), 도롱뇽(1급수 지표종), 두꺼비 등 양서류 10종, 구렁이 등 파충류 6종, 새매(천연기념물 232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 조류 41종,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 10종, 곤충류 82종, 거미류 7종, 가물치 등 어류 7종, 수서식물 15종 등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호종인 맹꽁이도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큰 이유는 구룡산일대의 산림생태계와 원흥이방죽 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자연 그대로의 생태학습장

두꺼비서식지가 알려지면서 탐방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주로 어머니와 아이들이다. 두꺼비의 짹짹, 산란, 부화, 성장, 이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꽁이,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의 성장 모습을 비교 관찰 할 수 있으며, 잠자리와 나비의 우화, 야생동물들의 배설물, 새들의 소리, 야생화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2003년 한 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탐방객수는 10,000여명, 2004년에는 두꺼비 산란시기인 3~5월 동안 무려 50,000여 명이 다녀갔다. 시멘트에 묻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잃은 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생태학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흥이마을은 그 자체가 훌륭한 생태학습장이다.



원흥이 방죽 전경 : 방죽 뒤편은 검찰청이 들어설 위치이다

II. 운동추진 배경과 특징

1. 운동 추진배경

1) 운동의 초기 즉, 2003년 초 두꺼비서식지 발견 당시의 추진배경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두꺼비 서식지의 보전’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3월 두꺼비 집단서식지를 발견하였을 때의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은 수립하였고(2002년 9월 승인) 실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황(2003년 12월 승인)이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두꺼비 집단서식지를 비롯하여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현황 등 생물서식현황에 대한 기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생태계보전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급히 두꺼비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분적인 계획변경을 통하여 충분히 실현가능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2) 운동의 중기 즉, 2004년 현장공사저지활동시기 이후의 추진배경은 ‘낡은 절차에 근거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개발·관료집단에 대응하여 생태보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헌신적 활동을 전개해 온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사수’라 할 수 있다. 토지공사가 2003년 12월 수립한 생태이동통로 조성을 골자로 한 두꺼비보전대책으로는 서식지 보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으며 원흥이대책위원회의 입장이었다. 2004년 초 토지공사는 더 이상의 대화나 의견수렴은 있을 수 없다며 공사강행의 의지를 밝히고 있었고, 원흥이대책위는 이미 10개월 가량의 활동을 통하여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원흥이운동의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운동적 의리에서 찾을 수 있었다.

2. 운동 특징

1) 원흥이운동은 낡은 절차(법제도)와 새로운 가치(시민사회의 지향)의 전형적인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제도적 합법성(사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을 내세워 개발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여건을 강조하였다. 반면 시민사회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우 기꺼이 계획변경의 부담을 감수하고 재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흥이운동은 개발이익 보다 생명존중, 생태보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운동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영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보전운동, 천성산도룡농살리기운동 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3) 원흥이운동은 택지개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원흥이문제는 대지산살리기운동과 함께 택지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사회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활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그 성과와 의미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 곳곳에 파급될 수 있다.

4) 원흥이운동은 목표에 비해 공략대상이 복잡하여 해법이 지난한 운동이다. 운동의 목표는 두꺼비서식지 1-2만평의 보전이다. 반면 이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압박하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크고 많았다. 시행자(토지공사), 하도급업체(대보건설), 개별입주자(이주자, 협의자, 상업용지분양자 등), 승인 및 협의권자(충청북도, 청주시), 핵심서식지 입주예정자(유증종합건설, 청주지방법원·검찰청), 지법·지검의 입지선정권자 및 건축설계권자(대법원과 법무부), 환경영향평가 심의권자(환경부), 도시계획 심의권자(건설교통부)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있어 목표에 비해 해법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5) 원흥이운동은 지역의 시민사회연대운동을 환경·생태운동으로 재결집하였다. 특히 동력과 역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기존 지역현안과 비교해 볼 때 단연코 가장 많은 시민사회역량이 집중된 사안이 되었다.

6) 원흥이운동은 운동의 대상까지도 포괄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상생의 실험대이다. 즉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와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대합의의 선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Ⅲ. 운동 경과 및 실시 내용

1. 주요운동 내용

1) 두꺼비서식지 발견 및 생태탐방 안내

2003년 3월 산남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두꺼비 집단서식지를 발견. 약 15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산란지인 원흥이방죽에서 산란을 마친 뒤 서식지인 구룡산 일대로 대이동. 전국으로 보도됨.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으며, 주부들이 자연안내자로 자원하여 ‘어린이자연학교’ 등 생태탐방을 진행함.

2003년 한해동안 1만여명의 탐방객 안내

2004년 3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다녀감.



2) 원흥이두꺼비마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 발족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지역내 많은 단체가 참여하였

으나 주로 생태교육연구소‘터’ 등 규모가 크지 않은 풀뿌리단체(모임)에 의해 주도. 10만인 서면운동을 진행하여 5만명 가량의 서명을 받았으며, 탐방안내, 현수막 이어달기(200여매), 작은음악회 등 교육문화운동을 통하여 2003년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킴.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원흥이방죽 북, 서쪽에 각각 청주지방법원·검찰청과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므로, 원흥이대책위는 산란지인 원흥이방죽과 서식지인 구룡산일대를 생태적으로 연결시킬 것을 주장. 토지공사는 6월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 12월 원흥이방죽과 구룡산을 20-30m폭의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꺼비보전대책 제시.

3) 원흥이대책위원회 개편 및 국면전환

토지공사의 두꺼비보전대책에 대하여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음. 2004년 초 운동의 지속여부에 대한 이견발생으로 원흥이대책위 동력이 감소하였으며, 교육문화운동을 넘어선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충북·청주환경연합 등 새로운 단체들이 집행부로 전격 결합하며 원흥이운동을 확대·전개하기로 결의

4) 100인행동단 조직 및 현장에서의 공사저지활동

토지공사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공사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2. 16 원흥이지키기 100인 시민행동단 조직. 2. 17 토지공사 기습적으로 벌목공사 강행. 원흥이대책위는 현장 천막농성장 설치 후 3개월간 매일 아침 공사저지활동 전개. 4. 9 새벽 5시 용역인부 등 160명을 동원한 도발적 공사시도 및 폭력사태 발생. 결국 산남3지구 내 대부분의 공사 강행되었지만 핵심서식지에 대한 공사는 저지함.

5) 총선거획단 구성 및 17대 총선 핵심의제 제시

17대 총선국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총선거획단’ 구성. 3. 23 ‘지역사회가 제안하는 17대 총선 핵심의제’ 제시, 후보자들로 구성된 ‘원흥이생태문화정치포럼’ 구성. ‘공개질의서’, 정견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원흥이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낙선대상자 선정 및 발표’

6) 2004 원흥이탐방축제

두꺼비 산란기 중 4 - 5월 원흥이탐방축제 전개. 매 주말 봄나물뜯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전개. 2개월 간 4만여명의 탐방객 안내. 환경예술제 ‘공존’ 개최를 통하여 충북 민예총 등 문화예술계 결합. 산남3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현장저지활동과 탐방축제를 병행함으로써 보전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사태의 심각성을 홍보

7) 상생의대안 및 지역사회 대합의 방안 발표

학계 전문가 42인으로 ‘정책자문단’ 구성. 4. 9 두꺼비서식지 7-8만평 중 핵심서식지 2만여평 보전을 골자로 하는 ‘상생의 대안 및 지역사회 대합의방안’ 제시. 지구 내 6여평의 녹지 중 2만여평을 원흥이방죽 북서편으로 집중시키고 그 곳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었던 청주 지방법원·검찰청과 공동주택단지는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원흥이방죽과 구룡산 자락을 부채꼴의 형태의 연결된 공간으로 보전하자는 방안. 모든 시설이 그대로 입주하되 위치조정에 대한 대합의를 통하여 부담을 분담하여 최소화하자는 상생의 대안 제시로 현실성 및 여론의 우위 확보.

8) 원흥이생태평화를 위한 삼보일배 및 방문농성

토지공사 및 하도급업체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원흥이대책위 집행부를 고소. 이를 극복하고 상생의 대안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표현하고자 5. 6 3일간 '원흥이생태평화를 위한 삼보일배' 전개. 지방법원·검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방문면담 후 토지공사충북지사 방문농성 진행.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에 의해 천막 2동 파손 및 폭력사태 발생. 3일간의 농성을 중단하고, 5. 12 토지공사 본사사장 방문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면담거부. 삼보일배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역량 대부분이 원흥이운동의 주 동력으로 합류.

9) 대책위 확대·개편,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출범

논의 틀 확대 및 동력 배가를 위하여 원흥이대책위를 확대·개편. 5. 13 충북도내 43개 단체와 각계인사 130인으로 구성된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발족. 토지공사 규탄 집단 삭발식 진행. 이후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총회방식의 논의구조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 9월까지 총 12차 총회 개최.

10) 열린우리당충북도당 앞 성직자 단식농성

대화 거부와 폭력적 대응을 일관하는 토지공사 규탄, 핵심서식지 도발가능성 대비,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하여 5. 15 열린우리당충북도당 앞에서 3인의 성직자가 철야단식농성 돌입, 15일간 진행. 이를 통하여 5. 24 토지공사와의 대화창구 마련. 또한 하여 열린우리당충북도당 차원의 원흥이생태공원관련실무위원회 구성.

11) 1000인행동단 조직 및 원흥이겨안기행사

대화결렬 시 핵심서식지 공사강행 국면에 대비하고자 원흥이지킴이 1000인 시민행동단을 조직한 결과 1067명 참가. 5. 22 시민행동단 발족 및 촛불한마당 행사 400여명 참가. 5. 30 새벽 6시 1차 시민동원령 '원흥이겨안기행사' 개최시 700여명 참가

12) 법원검찰청앞 청주시민 60만배

토지공사는 대화는 응하되 핵심서식지 입주기관인 지방법원·검찰청을 핑계로 상생의 대안 수용을 거부. 이에 6. 10 대법원과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청주시민 60만배' 추진. 36일간 총 13만배를 이어감.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함.

13) 환경스페셜 방영 및 원흥이생명평화문화제 개최

두꺼비 산란시기인 3 - 5월 3개월 간 환경스페셜 촬영. 6. 16 긴급생태보고 '원흥이마을의 두꺼비' 방영으로 전국적 여론 확산. 이날 2차 시민동원령 '원흥이생명평화문화제'에 1500여명 참가.

14) 토지공사개혁토론회 및 국민건의문 제출

6. 18 환경연합, 녹색연합, 시민행동, 환경정의,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토지공사개혁토론회 개최. 전국 255개 단체 연명으로 토지공사개혁 국민건의문 작성 및 제출

15) 아름다운 양보 '상생의 대안 최종안' 발표

토지공사는 상업용지 등 개별입주자 분양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청주지방법원·검찰청 등 용지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하게 불가피하고, 따라서 이미 이해관계가 형성된 입주자들의 민원과 소송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상생의 대안 수용 거부.

7. 2 불가피하게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아름다운 양보'라는 이름으로 상생의 대안 최종안 발표. 두꺼비서식지보전면적을 기존 2만여평에서 12,000여평으로 축소하므로써, 청주지방법원·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입주시설을 계획된 위치에 들어오게 하는 방안으로서, 원흥이방죽 서쪽의 공동주택단지 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체를 확보하고 북쪽의 청주지방검찰청 예정부지는 1만여평 중 습지 2000여평 만을 확보하자는 것임. 또한 인접한 광장 및 근린공원 2000여평을 대토하여 청주지방법원·검찰청을 예정된 위치, 예정된 면적으로 형태만 변경하여 입주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음.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는 평을 받음.



상생의 대안 최종안



토지공사의 최종안



상생의 대안 기존안 - 위치조정안

16) 도시지역활검증 프로그램 진행

7. 12 원홍이생명평화 대표단이 충청북도청 앞 3000배 진행. 7. 13 청와대 앞 3000배 진행. 이 무렵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충청북도는 관조자적 태도를 견지. 7. 26 승인권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하여 '천년대중 타종 기자회견' 진행과 동시에 '도시자 역할검증 10단계 도민행동프로그램' 공표. 7. 29 1단계 도청앞 천막농성. 8. 2 2단계 도정규탄 만장·현수막 부착. 충청북도가 시설물 강제철거, 폭력사태 발생. 30여명 연행. 이러한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3자 실무협의를 제안, 원홍이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짐. 8. 16 도청 앞 농성 잠정중단

17) 최종타결프로그램으로 충북도민행동 전개

3자 실무협약이 수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음. 9. 14 최종타결프로그램으로 반혁신규탄 충북도민행동 공표. 9. 20 1단계 도민행동으로 국정감사사절단 파견. 이후 국정감사 방청, 맹꽁이서식지재조사촉구, 공동주택승인절차 유보 촉구, 토지공사 고소·고발 등의 활동전개. 이 과정에서 국회 건설교통위, 환경노동위, 법제사업위원회 의원들이 원홍이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맹꽁이서식지정밀조사)의 문제점 부각

18) 타결국면의 도출, 대화합의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10. 18~19 토지공사는 그나마 남아있던 핵심서식지에 대한 공사를 강행함. 10. 27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자간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평가 중 부실하게 실시된 맹꽁이서식지정밀조사 재조사방침 결정. 10. 30 충청북도가 3자 대표단협의를 전격 제안하였으며, 토지공사에 대하여 강하게 압박함. 11. 11 원홍이생명평화회의는 마지막 압박수단으로 집행부 10인 단식농성 돌입. 결국 11. 17 토지공사가 이동통로 확폭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 제시. 3자 대표단회의에서 타결 전제조건 협의. 11. 22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서' 서명으로 원홍이문제 극적 타결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한 합의서

1. 두꺼비서식지보전구역에 관한 세부계획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생태공원(원흥이방죽 포함), 생태통로, 대체습지 등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존치시킨 부지 일체를 이하 '두꺼비서식지보전구역'이라 함
 2. 두꺼비서식지보전구역에 속하는 부지는 설치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꺼비이동통로는 26~56m(평균 38m) 정도의 규모로 확폭한다.
 4. 두꺼비서식지보전의 일환으로 지구 서측 공원부지 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 대체산란지를 포함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5. 근린공원 내 생태, 역사문화,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흥이생태문화관을 설치토록 한다.
 6. 원흥이방죽과 생태통로 연결부위 도로는 채광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7. 두꺼비서식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 과정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한다.
 8.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행위는 상호 취하하도록 한다.
 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 이 외에도 다음 2개 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의 하였으며, 이후 원흥이생명평화회의와 토지공사충북지사 간에 동의공문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1. 충북지역 내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2. 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충청북도, 청주시,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운영토록 한다.

2004년 11월 25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 계용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공동의장 강태재, 허원

타결내용 도면



합의사항 세부내용

토지공사와 원흥이 생명평화회의와의 합의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동통로 : 도면 참고
 4. 지구 밖 생태공원의 규모 : 1,300평 ~ 5,000평 사이 실현가능한 면적
 5. 생태문화관 규모 : 200평 가량의 건축물
 6. 도로의 높이 : 6m이상 확보
 7. 모니터 참여 : 기 용역 팀에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고, 추가적인 모니터 여부는 용역결과에 의해 결정
 9. 의견수렴 : 개발계획수립 시
 10. 실무기구 참여인원 : 충북도 1, 청주시 1, 토지공사 1,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1~2인
- ※ 발생비용 : 추진과정 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를 통하여 제공

2. 사업추진일지

- 1994. 3. 10 :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1999. 3. 4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35만9천평)
- 지구 지정 후 5년 만에 개발계획을 수립
- 2001. 12. 4 : 용지보상 착수 - 보상이 평당 20~30만원 가량
- 2002. 9. 14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33만평)
- 지방법원·검찰청 부지 포함, 토지이용계획이 파격적으로 변화
- 2002. 10. : 공동주택지 및 공공용지 매각
- 2003. 3. 29 : 생태교육연구소'터' 자연안내자모임, 두꺼비 집단 산란지 발견
- 이후 원흥이방죽 두꺼비 생태관찰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
- 5. 11 : 새끼두꺼비 대이동 시작(방죽에서 산으로), 전국 보도
- 5. 12 : 새끼두꺼비 이동과정 전국보도
: 원흥이방죽 뒤편 절터 등 원흥사지 가능성 제기, 시굴조사 요청
- 6. 4 : 42개 시민사회단체, 원흥이두꺼비마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 발족
: 원흥이지키기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 6. : 토지공사, 원흥이방죽 두꺼비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 발주
-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 심재한 박사 외
- 6. 19 : 직지포럼 「원흥사와 흥덕사-목판과 금속활자」 세미나 개최
- 7. 2 : 중앙문화재연구원, 산남3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시작
- 7. 7 : 원흥이대책위, 산남3지구 내 8개지역 시굴조사 추가요구
- 7. 14 : 원흥이대책위, 원흥이 방죽일대 종합생태조사 시작(총 6회)
- 7. 15 : 원흥이지키기 서명운동 3만명 돌파기념 '원흥이녹색음악회' 개최
- 8. 17 : 산남3지구 문화유적 시굴결과 설명회 및 지도위원회
- 8. 22 : 원흥이지키기 한마당 잔치
- 9. 25 : 토지공사, 두꺼비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회
(4m폭 이동통로 제시)
: 원흥이대책위, 반대입장 표명
- 10. : 청주시,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 10. 27 : 원흥이대책위,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을 위한 토론회
- 11. 6 : 원흥이대책위, 법원·검찰청사 산남3지구 이전계획 철회요구 기자회견
- 12. 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보
- 생태통로 20~30m로 확대, 표고 100m 이상 산림 절대보전 등 지적
- 12. 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12. 29 : 충청북도,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4. 1. : 토지공사, 현장사무소 설치
: 중앙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발굴조사 시작
- 2. 16 : 2004 원흥이 두꺼비살리기운동 선포 및 100인 행동단 결성 기자회견
- 2. 17 : 토지공사, 기습적으로 벌목작업 착수
: 원흥이대책위, 공사저지(이후 매일 아침 7시 집결)
- 2. 18 : 원흥이대책위, 공사저지를 위한 현장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2. 24 : 벌목강행 규탄 기자회견 및 토지공사충북지사 항의방문
- 2. 25 : 산란을 위한 두꺼비 집단 출현 및 짝짓기 시작,

- 원흥이대책위 생태조사 착수
3. 1 : 원흥이지키기 어머니·어린이·교사선언
및 두꺼비맞이 생명의 금줄치기행사
 3. 3 : 원흥이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30여명 참가)
 3. 4 : 토지공사, 배수로 공사 강행
: 원흥이대책위, 토지공사충북지사장 항의방문 및 면담
(공사중단 및 대화촉구)
 3. 5 : 원흥이대책위, ‘두꺼비서식지 보전과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체계 구성’ 제안
 3. 11 : 토지공사, 원흥이대책위의 제안 거부
 3. 12 : 원흥이대책위, 학계인사 간담회 진행
 3. 15 : 법원·검찰청사 두꺼비서식지 이전반대 시민청원
및 100인 릴레이 1인시위 돌입
 3. 18 : 원흥이대책위, 종교계·대표자 초청간담회
 3. 23 : 원흥이대책위, 청주지역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17대 총선 핵심의제 발표
- ‘산남3지구 택지개발과 생태문화보전을 위한 해법찾기’
 3. 26 : 원흥이생태문화보전 17대 총선거획단 발족 및 후보자동참 서명식
- 후보자 10인 동참 서명
 4. 1 : 평화바람유랑단 문정현신부와 함께하는 원흥이생명기도회
 4. 3 : 원흥이대책위, 원흥이 탐방축제 시작(4~5월 계속)
 4. 6 : 원흥이생태문화보전정치포럼 정견발표회 - 후보자 6인 참가
 4. 9 : 토지공사, 두꺼비핵심서식지에 대한 도발적 공사강행 및 중단
- 새벽 5시 용역인부 등 160여명 동원, 자원교사 부상 등 폭력사태 발생
: 폭력적 공사강행에 대한 토지공사 항의방문 - 토지공사충북지사
: 원흥이생태문화보전정책자문단 발족, ‘상생의 대안 및 지역사회 대합의’ 제시
- 부지 내 용지 위치조정을 통한 두꺼비 핵심서식지 2만여평 보전
 4. 13 : 총선거획단, 17대 총선후보 낙선대상자 발표 - 청주지역 후보자 5인
 4. 16 : 성직자 철야기도
 4. 17 : 청주종교인평화회의, 원흥이 사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4. 19~27 : 성직자, 원흥이 사태 원만한 해결 촉구하는 10일간의 생명평화기도회
- 박덕규교무, 신성국신부, 이현목사, 김태종목사 등 주재
 4. 19 : 도시생태연구소 박병상 박사, 현지조사 및 의견발표
- 이동통로안으로 두꺼비 서식지 보전 불가
 4. 28 : 청주종교인평화회의, 원흥이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토공 불참)
 4. 29 : 토지공사, 명예훼손 및 건물손괴 등으로 시민대책위원회 고소
 5. 1 : 대보건설, 업무방해 및 기물손괴 등으로 시민대책위원회 고소
 5. 1~2 : 충북민예총, 환경예술제 ‘공존’ 개최
 5. 5 : 청주MBC '시선과 시각' 원흥이 문제 토론
 5. 6~8 : 원흥이대책위, 원흥이생태평화를 위한 삼보일배 방문농성
- 김승환 대표 등 / 법원·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방문
 5. 7 : 원흥이대책위, 토지공사충북지사 무기한 농성 돌입
(천막파괴 및 폭행사태 발생)

- : 원흥이대책위, 청주시장 간담회
- 5. 10 : 토지공사, 시민대책위 천막농성장 또 다시 파괴 및 폭행
 - :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원흥이문제 집중 제기
- 5. 12 : 한국토지공사 사장 방문면담(김진호 사장의 거부로 무산)
 - : 건설교통부 건의문 전달
- 5. 13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한국토지공사 규탄 삭발식
 - 43개 시민사회단체와 130명의 각계인사로 구성
- 5. 15 : 한국토지공사 사장 퇴진과 원흥이생명평화를 위한 성직자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앞 / 김태종 목사, 박덕규 교무, 신성국 신부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1차총회
 - 단식철야농성장, 원흥이지킴이1000인시민행동단 조직 등 결의
- 5. 16 : 노영민, 오제세, 홍재형 당선자 농성장 방문
- 5. 18 : 상업용지 등 택지분양 신청접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 대표자 동조단식
- 5. 20 : 상업용지 등 택지분양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2차총회 - 단식철야농성장, 각계대표 50여명 참가
 - 청와대 건의문 제출 결의, 토지공사와의 대화 결의
- 5. 22 : 원흥이생명평화를 위한 청주시민촛불한마당 및 1000인시민행동단 발족식
 - 행사참가 300-400여명, 시민행동단 1067명 모집
 -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원흥이 문제 관련 대책회의
 - 두꺼비서식지 보전 및 문제해결 대응결의
- 5. 24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충청북도지사 면담(다자간 협의체계 공감)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토지공사충북지사 대화 시작, 1차협의
 - : 대보건설이 청구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 판결(주문대로 인용)
 - 시민대책위 및 소속임원 11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중지 조치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청와대 건의문 발송
 - 산남3지구 택지개발 생태파괴.사회갈등 현황 및 건의
- 5. 27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토지공사충북지사 대화 2차협의
 - : 원흥이마을 생태보전에 관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의 입장 재촉구
 - : 대보건설, 산남3지구 공사현장 내 시설물 철수 및 무단출입금지 통보
- 5. 28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 (1비서관 / 김창규목사 등 5인)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3차총회(각계대표 30여명 참가)
- 5. 30 : 원흥이생명평화를 위한 시민동원령 ‘청주시민 1000인 원흥이겨안기행사’
 - 새벽 6시 700명 참가, 성직자 단식 해제 권유 및 결의
- 5. 31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토지공사충북지사 대화 3차협의 - 대화 지속키로 합의
 - : 성직자단식농성해제 기자회견
 - :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도지부장, 정책위의장) 사무실 항의방문 및 농성
 - : 의장단회의, 원흥이운동 현실적 목표와 방향에 관한 논의
- 6. 1 : 열린우리당충북도당 비상대책회의, 원흥이공원관련실무위원회 구성
 - : 홍재형의원 사무실 농성해제
- 6. 3 : 원흥이마을 천막농성장 복귀

- : 열린우리당충북도당 실무위원회 현장방문 및 면담, 기관단체 방문
- 6. 4 : 사이버 시위 전개
 - 청와대, 법무부, 토공, 건교부,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 등 60-70여명 참가
- 6. 5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4차총회 - 청주시민 60만배 추진 결의
- 6. 7 : 원흥이생명평화회의·토지공사충북지사 대화 4차협의
 - : 새만금삼보일배단 김경일 교무 등 격려방문
- 6. 9 : 원흥이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청주시민 60만배(拜) 돌입 기자회견
 - 청주지방법원·검찰청 앞, 원불교청주교당 홍은용 교무 3500배
 - : 민주노동당 중앙당 환경위원회 사전조사
- 6. 12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5차총회
 - 법원검찰청앞 60만배 상황실, ‘원흥이생명평화문화제’ 개최 결의
- 6. 14 : 4차 협의 후 정례적 미팅 중단, 필요시 대화하기로 합의
- 6. 16 : 원흥이생명평화를 위한 2차 시민동원령 ‘생명평화 문화제’(1500여명 참여)
 - : KBS환경스페셜 ‘원흥이 마을의 두꺼비’ 방영
 - : 환경연합 사무국처장단 방문 및 기자회견
- 6. 18 : 전국시민사회단체 초청행사 ‘원흥이마을 보전과 토지공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
- 6. 23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6차총회 - 아성청국장, 상생의 대안 차선안 및 집중 활동안 검토
- 6. 30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대법원 행정처 면담
 -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구체적인 변경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의사 표명
- 7. 2 : 기자회견, ‘상생의 대안 최종안’ 발표
 - 서식지보전구역을 기존 2만여평에서 12,000여평으로 축소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드리는 공개요청서’ 제출
- 7. 5 : 청와대 관계자 상황설명 및 건의문 제출
- 7. 6 : 충청북도 지역개발과 약식공문 회신(공개요청 및 도지사면담 거부)
- 7. 8 : 법무부장관 건의문 제출 및 설명
- 7. 9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건의문 제출 및 설명
 - ‘지역사회 기관·단체 다자간 토론회’를 제안할 것
 - : 토지공사 측에 상생의 대안 최종안 전달
- 7. 12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대표단 특별기도 및 3,000배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7차총회
- 7. 13 : 청와대 기자회견 및 3000배, 제2비서관 면담
- 7. 14 : 기금마련 일일호프
- 7. 15 : 열린우리당충북도당 실무위원회 간사, 역할중단 답변
- 7. 19 : 단병호의원방문, 오제세의원 방문, 노영민의원 방문
- 7. 20 : 청주지검 사무국장 면담
- 7. 23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8차총회
- 7. 26 : 원흥이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타종 기자회견
 - <도지사 역할검증프로그램> 발표
 - 도청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30여명이 타종행사를 봉쇄했으나 타종 실행
- 7. 29 : 도지사 역할검증 1단계 도민행동

- <충북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 및 항의방문>
- 충청북도 바리케이트와 트럭 등을 동원 원천봉쇄, 충돌발생
 - : 도청정문 앞 천막농성장 설치
 - : 도지사, 토지공사 사장을 면담 - 계획변경 불가 답변
7. 29 : 단병호의원 청주방문
7. 30 : CJB 청주방송 '시사진단' 토론회
8. 2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대표단, 도지사 면담
- 정무부지사 주재로 토지공사충북지사장과의 협의 진행
 - 토지공사 측은 계획변경 불가입장 고수, 단 유승종합건설에 타진하기로 합의
 - : 도지사 역할검증 2단계 도민행동 <도정규탄 만장·현수막 부착>
 - 도청 울타리 및 주변 가로수에 만장, 현수막 50여매 부착
 - : 충북도, 천막농성장 및 만장·현수막 강제철거
 - 도청직원 200여명 동원, 김해숙 위원 다침
 - : 저녁 도청 안으로 50여명 긴급 집결 후 천막 설치 및 철야농성 진행
 - : 긴급대책회의,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 결의
 - 도지사 사과, 관련자 문책, 원상복구/ 도청 내 천막농성, 고소고발 추진
 - : 정무부지사 면담, 집무실(대표단) 및 농성장(전체)
 - 시설물 복원, 사과·문책 거부
 - : 도청 내 철야농성 진행
8. 3 : 정무부지사 면담, 동일한 입장 고수
- 원흥이문제 적극역할 공표 타진. 수용답변
 - : 긴급대책회의, 타협안 부동의
 - : 폭력만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도지사 항의방문 시도
 - 경찰과 물리적 충돌, 부지사 및 관련자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음
 - : 도청 농성장 강제철거
 - 경찰과 도청 공무원(수백명 이상)이 일제히 도청 내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 물리적 충돌 발생,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도지사 집무실 점거시도
 - : 경찰, 원흥이생명평화회의 관계자 전격 연행
 - 8인 가덕면 일대에 분산, 19명 동부경찰서 연행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의 70-80여명 충북도청 재집결
 - 도청 현관 앞, 도청 앞마당, 도청정문 앞 등
 - : 긴급대책회의, 연행자 석방과 정문 앞 농성장 재설치를 전제로 철수 결의
 - : 도청 정문 밖 천막농성장 임시복구 - 도가 차량을 세워놓은 관계로 정문 앞에 설치
 - : 연행자 전원 석방 및 도청 앞 철야농성 진행
8. 4 : 천막 이동 및 정문 밖 농성장 정상 복구
- 협의, 정문 옆 방해차량 철거와 농성장 위치 조정
 - : 기자회견 개최(10시), 정무부지사 면담(대표단)
 - 폭력사태 관련 사과 및 문책에 대한 답변 촉구, 원흥이 문제 적극 해결 촉구
 - 충청북도,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토지공사 등 3자 실무협의회 개최하기

로 합의

- 8. 5 : 김해숙 위원 입원
- 8. 6 : 여성단체 기자회견 및 여성정책담당관 면담(11시), 오후 여성단체 성명
- 사과, 문책, 치료비 배상
: 충청도 여성정책담당관, 김해숙 위원 위로방문
- 8. 7 : 대표단, 정무부지사 면담(11시)
: 원홍이생명평화회의 대표단과 정무부지사, 김해숙 위원 위로방문(12시)
- 8. 9 : 3자 실무협의회 1차회의 개최 - 기본입장 확인
- 8. 10 : 원홍이생명평화회의 10차총회 개최 - 충북참여연대 동범실
- 폭력사태 관련대응 '법적 대응은 잠정 유보하되, 질의서 등 해명작업
진행'
: 충청북도 실무차원의 검토안 제시
- 8. 12 : 3자 실무협의회 2차회의 개최
- 8. 12 : 청주MBC '시선과시각' 토론회
- 8. 13 : 원홍이생명평화회의 11차총회 개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 충청북도안 수용하고, 도청 앞 농성 잠정 중단 결정
: 참여정부 최종건의문 제출 및 대응 결의
- 8. 16 : 상생실현과 대합의 도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도청앞 농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안 수용입장 발표
: 원홍이생명평화회의 충청북도 방문면담, 입장 전달
- 8. 17 : 3자 실무협의회 3차회의 개최
- 8. 20 : 참여정부에 보내는 최종건의문 발송 - 국무총리, 시민사회수석, 법무부
장관
- 검찰청부지 중 일부 생태공원 조성, 시민사회수석 간담회 요구 등
- 8. 24 : 3차 실무협의회 4차회의 개최
- 9. 6 : 도청꺼안기 행사
- 9. 7 : 3자 실무협의회 5차회의 개최
- 9. 14 : 원홍이문제 타결 최종촉구 및 충북도민행동 공표 기자회견
- 9. 15 : 3자 실무협의 6차 회의
- 9. 20 : 1차 도민행동 '국정감사사절단 파견 기자회견' 및 국회 방문
- 안홍준, 노영민, 우원식, 이호웅, 노회찬 의원실 방문, 국정감사 협의
- 9. 21 : 토지공사, 맹꽁이서식지정밀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 보전대책 미수립, 원홍이방죽 복서측 조사부실, 공사강행 후 조사실시
문제
- 9. 23 : 토지공사충북지사장 면담
- 타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유승종합건설 어쩔 수 없다는 입장
- 10. 2 : 집행위원회 - 도민행동 추진계획 보완
- 10. 5 : 2차 도민행동 '공동주택단지 승인절차 유보촉구 기자회견'
- 10. 6 : 토지공사 국정감사
: 3차 도민행동 '토지공사 엄중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장 방청
- 안홍준, 노영민, 이호웅, 정갑윤 의원 등 원홍이문제 관련 질의
- 1기 대책위와 합의, 맹꽁이 공동방사 등 허위답변, 위증 문제로 고발
검토
- 10. 7 : 청주시장 간담회 - 공동주택단지 승인절차 유보 요청
- 유승종합건설 사장 소환, 의견 개진키로 함.
- 10. 9 : 국회 방문 - 노회찬, 우원식 의원실

- 10. 11 :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 : 4차 도민행동 ‘금강유역청 엄중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장 방청
 - 단병호, 우원식 의원 원흥이문제 관련 질의
 -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맹꽁이정밀조사 문제점 집중, 재조사 가능성 확인
 - : 청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
 - 노회찬 의원 원흥이문제 관련 질의, 검찰청부지 서남측 완충녹지 조성 "시민단체 견해를 경청하고 있다"며 "100% 만족스런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검찰공간운영 편의와 시민단체가 서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 : 3차 실무협의 7차회의 개최
- 10. 1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원흥이현장 실사
- 10. 13 : 청주시장, 유승종합건설 사장 면담
 - 유승종합건설·토지공사, 녹지대토방안 거부/청주시장 타협안 검토제시
- 10. 14 : 청주시, 대우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유승종합건설 반력
 - : 환경법률센터 방문 및 법률자문
- 10. 16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13차 총회(참여연대 동범실)
 - 사후환경영향조사 재조사 촉구, 토지공사 고소고발 대응 결의
- 10. 18~19 : 토지공사, 원흥이방죽 뒤편 맹꽁이·두꺼비 핵심서식지 공사강행
 - : 국정감사 등에서 맹꽁이재조사 가능성 높아지자 행정조치 전에 강행함.
- 10. 19 : 5차 도민행동 ‘사후환경영향조사 재조사 촉구 및 공사도발 규탄 기자회견’
 - 맹꽁이정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 촉구
 -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비상총회
 - 원흥이현장 감시활동 재개와 맹꽁이재조사 관철을 위한 활동 결의
- 10. 20 : 산남3지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건의문 발송
- 10. 21 : 환경부 종합감사
- 10. 22 : 건설교통부, 법무부 종합감사
 - : 금강유역환경청 방문면담 - 환경관리국장 면담, 맹꽁이조제사 촉구
 - : 김해숙(역사문화학교 대표) 단식농성 돌입(원흥이현장)
- 10. 25 : 6차 도민행동 ‘토지공사 고소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
 - 환경영향평가 추가협의사항 미이행 및 맹꽁이서식지 훼손
- 10. 27 : 금강유역환경청, 원흥이문제 관련 다자간회의 개최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충청도, 토지공사, 유승종합건설, 대우건설 등
 - 맹꽁이 서식지 재조사 방침 결정, 행정조치 예고
- 10. 28~ : 토지공사, 맹꽁이재조사 해당지역에 대한 공사 지속적 강행
- 10. 30 : 충청북도 방문면담 - 정무부지사 면담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행정조치 요구
 - 충청북도, 타결을 위한 3자 대표단협의 제안
- 11. 1 : 3자 대표단 협의 개최 - 충청북도·토지공사·원흥이생명평화회의
- 11. 9 : 3자 대표단 협의 무산 - 토공, 이동통로 아주종합건설 부지로 6m 확대 안 검토
- 11. 11 : 토지공사 응징 프로젝트 ‘시민운동가 10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11. 12 : 대우건설 산남3지구 공동주택 분양 시작 - 서남부 녹지대토방안 불가능
- 11. 14 : 원흥이생명문화제 - 철당간
- 11. 17 : 3자 대표단 협의 개최 - 토공, 이동통로 26~56m로 확폭안 제시
 - : 3자 실무 협의 개최 - 타결 전제사항에 대한 협의, 합의문(안) 작성
- 11. 18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14차 총회 - 합의문(안) 수용 결정, 단식 해제
- 11. 19 : 대원, 현진, 계룡, 아주(영조) 등 산남3지구 공동주택 분양 시작
- 11. 22 : 원흥이문제 타결,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한 합의문’ 전격 서명
- 11. 23 : 협의서 교환식 및 ‘원흥이문제 타결에 관한 설명회’
- 11. 25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2회 풀뿌리시민운동상 시상식
 - 원흥이두꺼비서식지보전운동, 풀잎상 수상(2위)

- 11. 28 : CJB 청주방송 일요초대석 - 원홍이운동 결산
- 11. 29 : KBS 청주총국 시사토론 - 원홍이운동 결산
- 11. 30 : 서원대학교·청주MBC 사회갈등조정프로그램 - 원홍이운동 결산
- 12. 08 : 원홍이생명평화회의 15차 총회
- 원홍이 운동 평가, 수입기구 구성 논의
- 12. 22 : 원홍이보고대회 및 '얼음두꺼비의 노래' 시집 출판기념회
- 원홍이 1차결산 및 원홍이를 노래한 시집 출간

<2004년 원홍이 탐방축제 추진일정>

3. 6 (토)	우리의 친구 두꺼비가 내려와요	
3. 11 (수)	두꺼비 알 관찰	애들아뒤하니어린이집 20명 참가
3. 13 (토)	두꺼비와 개구리 우리는 양서류	45명 참가
3. 19 (금)	양서류의 생태적 특성 관찰	서부종합복지관 40명 참가
3. 20 (토)	두꺼비는 긴 줄에 알을 낳아요	39명 참가
3. 25 (목)	양서류 알 관찰	금천초 5-9 35명 참가
3. 26 (금)	양서류 알 관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50명 참가
3. 27 (토)	올챙이가 되었어요(1)	40명 참가
3. 28 (일)	두꺼비와 개구리올챙이 비교 / 봄꽃	신깁러리 미술관 40명 참가
4. 3 (토)	올챙이가 되었어요(2)	36명 참가
4. 3 (토)	두꺼비올챙이 생태관찰 / 새	홍덕초 5-2 35명 참가
"	"	형석중 1학년 80명 참가
"	"	영운동 천주교 50명 참가
4. 8 (목)	두꺼비올챙이 생태관찰 / 작은현수막 그림	용암초 4-1,2,3 120명 참가
"	"	도화어린이집 60명 참가
"	"	애들아뒤하니어린이집
4. 9 (금)	두꺼비올챙이 생태관찰 / 작은현수막 그림	용암초 4-4,5,6 120명 참가
4. 10 (토)	올챙이가 되었어요(3)	38명 참가
4. 10 (토)	"	한가정어린이집 30명 참가
4. 10 (토)	"	한가정어린이 60명 참가
4. 10 (토)	"	스카우트 영상반 11명 참가
4. 13 (화)	두꺼비올챙이 생태관찰 / 엽서쓰기	예림어린이집 80명 참가
"	"	책이좋은아이들 20명 참가
4. 16 (금)	"	수곡초 3-8/4-5 71명 참가
"	"	충북고 1학년 30명 참가
"	"	서부종합복지관 20명 참가
4. 17 (토)	우리들은 다함께 춤을 추어요	40명 참가
4. 17 (토)	"	전산정보고 환경반 15명 참가
"	"	원평중 1학년 30명 참가
"	"	선재학원 80명 참가

"	"	충북여성민우회 40명 참가
"	"	칠성초 의사분교 10명 참가
"	"	청주담사대 60명 참가
"	생태그림책 만들기	책이좋은 아이들 70명 참가
4. 20 (화)	두꺼비올챙이 성장관찰(뒷다리) / 잠자리	사직유치원 80명 참가
"	"	새청주미술학원 15명 참가
4. 21 (수)	"	새청주미술학원 15명 참가
"	"	동산교회 유치원 76명 참가
4. 24 (토)	뒷다리가 나왔네요	42명 참가
4. 24 (토)	두꺼비올챙이 성장관찰(뒷다리) / 잠자리	수곡초 2학년 250명 참가
"	"	원평중 1학년 20명 참가
"	"	충북고 2학년 30명 참가
"	"	홍덕초 6-4 36명 참가
4. 27 (화)	"	청운중 3학년 350명 참가
4. 28 (수)	"	파스텔미술학원 50명 참가
"	"	한솔초 5학년 250명 참가
4. 29 (목)	"	아방미술학원 30명 참가
4. 30 (금)	"	푸른솔미술학원 45명 참가
"	"	슬기어린이집 40명 참가
5. 1 (토)	앞다리도 나왔네요	39명 참가
5. 2 (일)	두꺼비올챙이 성장관찰(앞다리) / 나비	수원공동육아 40명 참가
5. 4 (화)	"	거성유치원 60명 참가
"	"	지역사회협의회 25명 참가
5. 5 (수)	"	영운동 천주교회 50명 참가
5. 6 (목)	"	한국대교원대 병설유치원 25명 참가
5. 7 (금)	"	가경초 3,6학년 480명 참가
5. 8 (토)	꼬리가 줄어듭니다!	30명 참가
5. 8 ~ 9	애기두꺼비 관찰(대이동 준비)	어린이 기자단 37명 참가
5. 10 (월)	"	은물어린이집 80명 참가
5. 11 (화)	"	청주교대 120명 참가
"	"	꼬마깨비어린이집 45명 참가
"	애기두꺼비 관찰(대이동 준비)	아이세상어린이집 30명 참가
"	"	큰산어린이집 20명 참가
5. 12 (수)	"	그림터미술학원 90명 참가
"	"	충청어린이집 160명 참가
5. 15 (토)	떠날 준비를 할까	60명 참가
5. 22 (토)	구룡산으로의 험난한 길을 떠나자	두꺼비 이동 완료
5. 29 (토)	원홍이는 청주의 희망	두꺼비 이동 완료
6. 4 (금)	원홍이방죽 일대의 자연생태 관찰	개신그린미술학원 50명 참가
6. 5 (토)	"	청주시청소년수련원 35명 참가
6. 9 (수)	"	새터초등학교 39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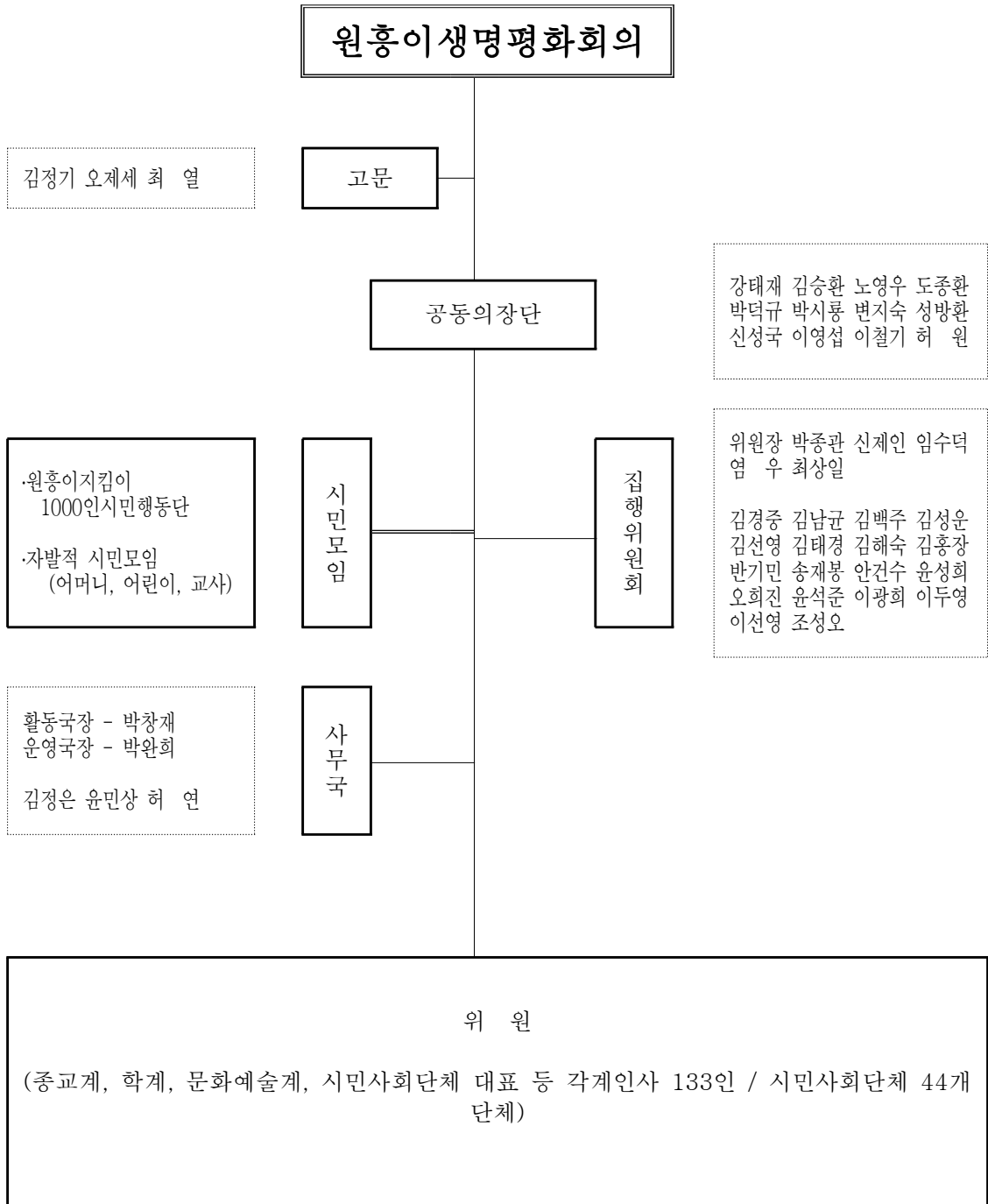
<원흥이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청주시민 60만배(拜) 추진일정>

- 1 일차 6월 9일 3,500배 총 3,500배
홍은용(원불교교무), 박덕규(원불교교무)
- 2 일차 6월 10일 3,810배 총 7,310배
여성장애인연대(하숙자, 권은숙, 김상윤), 김승환(의장), 윤민상(간사), 염우(실행위원장), 성방환(의장), 박덕규(의장), 이철기(의장), 허원(의장), 박완희(운영국장)
- 3 일차 6월 11일 4,506배 총 11,816배
충북환경연합(김경중, 김정은), 청주KYC(임수덕, 안중식, 엄승용, 손은성, 권미옥, 민승기)
- 4 일차 6월 12일 2,175배 총 13,991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건수, 나금련)
- 5 일차 6월 14일 4,125배 총 18,116배
하숙자(외노), 김태경(대간연대), 김승환(의장), 성주우(터), 김병기(참여연대)
- 6 일차 6월 15일 3,963배 총 22,079배
김혜숙(역사), 터(윤원숙, 신경아), 카농(오경석, 박상원), 터(서기석, 김선영, 오승경), 길상화(작가)
- 7 일차 6월 16일 4,240배 총 26,319배
최 선(어린이), 박선희(건강생협), 문성심(원불교), 터(신양숙, 김난희, 한은례, 이향숙, 김은미, 신준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강태제, 김주복, 박연수, 이효윤, 안현숙, 윤의정, 송재봉, 김경세, 최진아)
- 8 일차 6월 17일 4,122배 총 30,441배
청주환경연합(김도현, 김복자, 윤민상, 박창재, 김진규)
- 9 일차 6월 18일 3153배 총 33,594배
김태중(삶터교회목사)
- 10일차 6월 19일 2,122배 총 35,606배
김태경(대간연대), 박완희(운영국장), 신제인(상황실장), 권기윤(터), 여성장애인연대(권은숙 외), 홍성완(대간연대)
- 11일차 6월 21일 4,011배 총 39,617배
백두대간연대(홍성완, 김태경, 차은량, 김경세, 허진숙, 정현순, 박연수), 원광유치원(14명)
- 12일차 6월 22일 4,308배 총 43,925배
이용재(충북평화연구원), 권의식(증평참여자치), 역사문화학교(한윤경, 신수진, 연숙자), 허 연(간사), 박완희(운영국장), 씨네오디세이(김선화 외 석교초 5명)
- 13일차 6월 23일 3,300배 총 47,225배
윤석준(터), 김진규(청주환경연), 정복자(생생문화사랑), 김윤목(대간연대), 박홍규(환생교)
- 14일차 6월 24일 3,153배 총 50,378배
김성운(충북민예총), 허석렬(충북대), 김정은(충북환경연합), 박완희(터), 신제인(터), 박덕규(원불교충북교구)
- 15일차 6월 25일 4,247배 총 54,625배
영운동성당(신성국 신부, 박정균, 양선화, 김두실, 기민영, 김웅선, 이영옥, 김영송, 박순미), 정현순(대간연대), 환생교(이미애, 김태식, 신의식, 문승훈)

- 16일차 6월 26일 3,505배 총 58,130배
신제인(터), 은경민(직지포럼), 박완희(터), 황인오(청주KYC), 김승환(충북대), 윤민상(청주 환경연합), 박종관(충북민예총), 최상일(민주노동당)
- 17일차 6월 27일 3,495배 총 61,625배
김경중(충북환경연합), 강현진(터), 신제인(터), 자연어린이집(김경세 원장 및 어린이), 연 숙자(터), 양준석(산남복지관), 김진규(청주환경연합), 김백주(민주노동당)
- 18일차 6월 28일 3,311배 총 64,936배
신제인(터), 김해숙(역사문화학교), 박창재(청주환경연합), 김태중(삶터교회), 윤민상(청주환경연합), 김진규(청주환경연합), 김동현(터), 김상순(원불교 청년회)
- 19일차 7월 1일 3,416배 총 68,352배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최상일, 임창우, 배창호, 이상근, 이진범, 최원석, 김백주), 김진규(청주환경연합), 김해숙(역사문화학교)
- 20일차 7월 2일 4,101배 총 72,453배
윤민상(청주환경연합), 길상화(터), 김정은(충북환경연합), 김복자(청주환경연합), 전정임(터), 김서우(동주초), 정복자(생생문화사랑)
- 21일차 7월 3일 1,687배 총 74,140배
류일렬(수돗물불소화반대시민행동)
- 22일차 7월 5일 3,330배 총 77,470배
신제인(터), 김재한(청주대), 유행렬(열린우리당), 김승환(충북대), 염우(충북환경연합), 김선구(씨네오닷컴), 박완희(터), 오대명(대간연대), 홍성완(청주환경연합), 김진규(청주환경연합), 윤민상(청주환경연합)
- 23일차 7월 6일 3,718배 총 81,188배
윤민상(청주환경연합), 신제인(터), 박연수(대간연대), 박종호(문화사랑모임), 조성오(불교신도연합회), 안순애(전교조), 박완희(터), 김정은(충북환경연합)
- 24일차 7월 7일 2,282배 총 84,234배
윤성희(민노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김주복, 안현숙, 송재봉, 최진아, 정종민, 권의식)
- 25일차 7월 8일 3,881배 총 88,115배
역사문화학교(김해숙, 정미숙, 김윤희, 유미경, 한윤경, 연속자, 김태경, 김혜경, 황인영, 신수진), 청주KYC(임수덕, 손은성, 엄승용, 황인오, 최정희, 권미옥)
- 26일차 7월 9일 3,438배 총 91,553배
청주환경연합(김도현, 홍성완, 김복자, 김진규, 김희탁, 정미경, 윤민상) 서울환경연합(박기호, 김희경, 김성우, 최은실, 최윤실, 김민식, 조명숙, 김해진, 이미연)
- 27일차 7월 12일 3,488배 총 95,041배
대표단-도청앞(박덕규, 김승환, 이홍원, 성방환, 김태중, 이철기, 허원, 김학성, 김재한, 김창규, 신영희, 유영경, 신현주)
- 28일차 7월 13일 3,500배 총 98,541배
박광만(원불교 서청주교당)
3,000배 총 101,541배
청와대앞 기자회견
- 29일차 7월 14일 4,472배 총 106,013배
염우(충북환경연합), 이형숙(청주환경연합), 전미영(터), 김경중(충북환경연합), 김성운(충북민예총), 신제인(터), 김상순(원불교 청년회)

- 30일차 7월 15일 3,003배 총 109,016배
 터(신제인, 김해숙, 김선영, 신향숙, 김란희, 이상현, 연속자, 김은미, 권기윤, 허연, 박완희, 김동현, 김민식)
- 31일차 7월 16일 3,033배 총 112,049배
 오송성당(김인국, 문인숙, 임현민, 이희심, 황언년, 김정희, 허환숙, 방문식, 박봉림, 김정민, 김옥분, 신영숙, 서민정, 김정숙, 구성자, 신경자, 양선화), 영운동성당(신성국, 박정균, 기민영)
- 32일차 7월 19일 3,152배 총 115,201배
 신제인(터), 윤민상(청주환경연합), 허연(터), 홍성완(청주환경연합), 박창재(청주환경연합)
- 33일차 7월 20일 3,434배 총 118,635배
 신민석(터), 신준석(터), 김정은(충북환경연합), 박완희(터), 윤민상(청주환경연합), 김경세 (자연어린이집), 김복자(청주환경연합), 허진숙(대간연대)
- 34일차 7월 21일 3,600배 총 122,235배
 김해숙(역사문화학교), 박연수(대간연대), 윤민상(청주환경연합), 신향숙(터), 이상현(터), 김동현(터), 김민식(터), 청주대 지리교육과(현준현, 김유일, 김동현, 김영애)
- 35일차 7월 22일 3,555배 총 125,790배
 오대명(대간연대), 김태경(대간연대), 김성운(충북민예총), 류일렬(수돗물불소화반대 시민행동), 김명중(충북환경연합), 김형남(충북환경연구소), 박완희(터), 윤민상(청주환경연합), 양준석(산남복지관)
- 36일차 7월 23일 4,021배 총 130,000배
 신제인(터), 김해숙(역사문화학교), 정미숙(역사문화학교), 서영자(마을공동체), 박대규(마을공동체), 박완희(터), 김상렬(전교조), 함종철(전교조), 최상일(민주노동당), 정복자(생생문화사랑), 유종범(민주노총), 민혜선(여성의전화)

3. 연대기구의 명칭, 조직, 역할분담



- 의결기구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총회, 12차 총회 개최
- 대 표 단 - 공동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예계, 학계 인사로 구성
- 대부분이 실질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음
- 집행기구 - 집행위원회, 주요단체들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로 구성, 전략기획 및 사업집행
- 실무기구 - 운영국(생태교육연구소‘터’)과 활동국(청주환경연합) 역할분담, 실무총괄

위 원

<p>강태재(문화사랑모임 회장) 권상준(청주대 조경학과 교수) 권은숙(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김강민(작가)</p> <p>김경중(충북환경연합 교육부장) 김기현(화가)</p> <p>김남근(민주노동총중북본부대협국장) 김민수(도예가)</p> <p>김백규(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사철(전교조충북지부 사무처장) 김상현(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선규(씨네오디세이 간사)</p> <p>김안영(더자연인내지모임 회장) 김성원(독립영화감독) 김은영(시인)</p> <p>김승환(충북민예총 회장, 충북대 교수) 김상수(청주대 사회과 교수) 김윤포(청주베다니학교 교장) 김재수(충북대 입학과 교수) 김재현(청주대 지리교육과 교수)</p> <p>김장기(전 서원대학교 총장) 김정민(충북환경연합 총무) 김준대(충북대 회계학과 교수) 김진보(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규(목사, 시인)</p> <p>김태경(백두대간자연연대 사무국장) 김태경(책이좋은아이들 회장) 김태준(슬터교회 목사) 김하준(시인)</p> <p>김학성(충북환경연합 대표)</p> <p>김혜숙(청주여성문화회대표, 소설가) 김홍장(충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희식(충북문화의집 관장, 시인) 남기창(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p>	<p>노영우(목사, 충북참여연대 대표) 도종환(시인) 리장희(풍물인) 류정환(시인)</p> <p>박덕규(원불교 충북교구 교무) 박민수(민주노동당충북지부위원장) 박미숙(인무가)</p> <p>박석환(서원대 환경건설정보학과교수) 박선희(청주건강생활 위원장)</p> <p>박시룡(한국고원대 생물교육과 교수) 박원희(생태교육연구소터 사무국장) 박연수(백두대간보전연대 집행위원장) 박재인(충북대 입학과 교수)</p> <p>박종현(충북민예총 사무처장, 마당극) 박중희(청주대 도시지역계획학과교수) 박중희(충북연대 집행위원장)</p> <p>박창재(청주환경연합 사무국장) 박호표(청주대 관광학과 교수) 박희두(서원대 지리교육과)</p> <p>박기민(충북생명의숲 사무국장) 배창희(민주노동당충북도지부장)</p> <p>변지숙(충북여성민우회 회장) 봉현경(청주통일청년회 간사) 서기석(무심천사랑시민모임 총무) 서용석(충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성기서(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p> <p>성방환(전교조충북지부 지부장) 손순옥(화가) 손영복(서원대 과학교육과 교수)</p> <p>송재명(연대회의의 사무처장) 신상용(화가) 신상철(시인)</p> <p>신성권(연운동성당 신부) 신수진(동화있는어른모임 총무)</p>	<p>신영희(청주YWCA 사무총장) 신제인(생태교육연구소터 대표) 신현주(청주YWCA 부장) 심승희(청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안건수(충북외국인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상현(충북대 철학과 교수)</p> <p>염 위(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오경석(카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오상근(청주한살림 상무)</p> <p>오재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오희진(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회장) 유승용(연가사) 유영주(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총무) 유진채(백두대간연대대표, 충북대교수) 유행렬(열린우리당 국정지문위원) 윤도현(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학 교수)</p> <p>윤민성(청주환경연합 신가) 윤석익(순해살가 회장, 시인) 윤석준(순해살가)</p> <p>윤성희(민주노동당 상당위원장) 이 현(충북기독교인권위원회, 목사) 이광진(연출가)</p> <p>이광희(한우리신문 상임교문) 이두영(청주경찰서 사무처장) 이민형(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선경(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p> <p>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 이수애(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p> <p>이영섭(민주노동총중북본부장) 이윤로(풍물인) 이종희(충북환경연구소장, 청주대교수)</p> <p>이철기(청주환경연합 대표) 이철수(목관화) 이철희(충북대 원예학과 교수)</p>	<p>이항동(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석(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교수) 이혁규(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흥원(청주민예총 회장, 화가)</p> <p>임수덕(청주KVC 대표) 장태현(청주대 조경학과 교수) 정복재(생생문화사랑 회장) 정세웅(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영숙(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동언(판소리)</p> <p>조성오(충북불교신도연합회 사무국장) 조승주(화가) 조수원(충북대 식물외학과 교수) 차은광(수필가) 천태영(충북대 생물자원연구소 소장) 최상일(민주노동당충북도지부환경위원장) 최시영(일하는사람들 사무국장)</p> <p>최 열(환경연합 대표)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최효승(청주대 건축학과 교수) 탁영주(가수) 허성룡(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정현(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p> <p>허 연(생태교육연구소터 간사) 허 원(충북환경연합정책위원장, 교수) 허장무(시인) 홍사생(무예인) 홍상표(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황재환(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황화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p> <p>등 133인</p> <p>밑줄 - 교문, 의장, 집행위원, 실무자</p>
<p>동화있는어른모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무심천사랑시민모임 문화사랑모임 민주노동당충북지부 민주노동총중북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 생생문화사랑 생태교육연구소터 씨네오디세이</p>	<p>원불교충북교구 인터넷시민도서관 전교조충북지부 직지포럼 참교육학부모회 책이좋은아이들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건강생활협동조합</p>	<p>청주경찰서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역사문화학교 청주통일청년회 청주한살림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신도연합회 충북생명의숲</p>	<p>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연대 충북외노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한생교 한국카톨릭농민회 희망네트워크충북위원회</p> <p>44개 시민사회단체</p>

IV. 활동 성과 및 긍정적 영향

1. 생명운동, 생태계보전운동을 지역사회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충북·청주지역의 경우 비교적 시민사회운동의 활발히 전개되었던 반면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운동이 대표적인 이슈로 부각된 바 없다. 무심천살리기운동, 백두대간보전운동 등의 현안은 도시환경 또는 국토보전의 측면에서 접근한 성격이 짙다. 해마다 십여만마리의 새끼두꺼비를 잉태하는 경이로운 생명현상을 접하며,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진정성에 기반한 생명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생명운동이자 생태계보전운동인 원흥이운동은 지역사회 역대 주요현안을 망라하여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평이다.

2. 획일적이고 반생태적인 낡은 택지개발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산림과 하천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획일적인 모습의 도시가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방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공간과 직결된 택지개발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전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민사회의 높아진 지향을 낡은 법제도에 근거한 택지개발이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남3지구 원흥이 문제는 택지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사회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원흥이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청주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사회갈등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비오텍맵 작성에 들어갔다. 토지공사 측도 새롭게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남3지구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야기 한다.

3. 상생의 실험대가 되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공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영은 원흥이운동에 관철되는 지향과 이념이다. 그러나 원흥이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상생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갈등당사자들 간의 상생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승인권자인 충청북도, 서식지보전을 주장하고 있는 원흥이생명평화회의가 부담을 분담하여 대립의 틀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업체, 입주기관인 법원·검찰청, 청주시, 입주자 등 가급적 연관된 많은 부문집단을 상생의 축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상생을 위하여 두꺼비서식지를 양보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적이고 관료적인 부문집단을 생태보전에 견인, 참여시키는 선례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상생이 실현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원흥이운동은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상생의 주도해 오고 있다.

4.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켰으며, 연대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원흥이운동은 생태교육연구소‘터’ 등 규모가 크지않은 풀뿌리운동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어, 환경연합, 민예총, 참여연대 등 비교적 지명도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합류하고, 나아가 여민회, 민주노총 등 여성, 노동운동이 결합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역량을 결집시켰다. 특히 운동 초기단계에서 동시에 합류하여 역할을 분담해 오던 보편적인 연대운동과 달리 과정 상에서 다양한 요구와 방식으로 결합하여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연대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5. 다양한 운동방식을 창출을 통하여 시민운동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모든 현안이 그렇겠지만 원흥이운동 역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운동방식을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생태탐방과 탐방안내는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장에서의 공사저지활동과 시민동원령은 시민운동의 실천력과 견결함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삼보일배와 청주시민 60만배, 성직자들의 단식농성은 새만금과 천성산에서 보여준 생명존중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학계는 상생의 대안을 통하여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예술계는 예술제, 장승제를 통하여 운동을 풍요롭게 하였다. 또한 철저히 총회방식으로 운영된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지난한 원흥이운동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특히 새벽 6시 700여명의 시민들을 동원한 시민동원령(원흥이겨안기행사)과 수백명이 연이은 청주시민 60만배는 원흥이운동이 만들어 낸 운동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획득된 값진 성과는 운동역량의 성숙이다. 생명의식과 진정성, 참여와 분담, 투쟁력과 교섭력, 공격과 양보, 새로운 사람 등이 원흥이운동을 통하여 운동가들이 공유하게 된 것들이다.

6. 기업과 권력에 대한 압력과 견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의 위상을 확대하였다.

시민사회의 지향을 기반으로 기업과 권력에 대한 압력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흥이운동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본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는 토지개발에 의한 이익을 획득하는 기업이다. 종전처럼 택지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중앙정부와 부처는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협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구이다. 역시 향후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을 무원칙하게 지도·감독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정치권(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부분적이거나 본연의 역할을 각인하였다. 원흥이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어도 택지개발과 관련한은 시민사회의 위상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V. 활동의 개선점 및 향후 과제

1. 계획단계부터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은 결국 해법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물론 원흥이운동의 경우 2003년 3월 두꺼비서식지 발견을 계기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초기단계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운동을 시작할 무렵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용지보상이 완료되고 개별입주자택지 분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지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어 있었다. 계획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택지개발(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또는 시민사회)의 총체적 역량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였다. 적어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초기단계에 시민사회운동역량의 집중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는 점도 해법을 어렵게 한 요소가 되었다.

2003년 원흥이운동 초기단계의 특징은 자원활동 및 시민참여에 기반한 교육문화운동을 통하여 현안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원흥이 문제를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반면 보편적인 시민사회운동역량을 집중시키는 작업이 지연되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2004년 2월 이후 치열한 현장대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운동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대응방식을 통한 총력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실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보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법제도적 대응이 미흡하였다.

추진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 생물서식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생태계보전대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법제도적 대응 등 치밀한 대응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는 못하였다.

4. 시민들의 호응은 컸으나 상시적 운동동력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부족했다.

원흥이운동은 시민들의 호응을 매우 많이 받았다. 원흥이 탐방축제 및 시민동원령 등의 대중참여행사도 상황리에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훈련된 사람은 많다. 그러나 광범위한 시민들을 원흥이운동의 고정적인 동력으로 조직해내지는 못하였다. 원흥이운동의 상시적인 동력은 시민사회단체로 이미 조직화된 역량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다.

5. 전국적 시민사회역량의 지원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였다.

지역현안을 지역역량을 기본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택지개발방식의 전환,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제도의 개선, 생명운동 및 생태계 보전운동의 연대문제 등 전국화하므로써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다. 물론 토지공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 및 국민건의문 등 최소한의 활동에 그쳤다.

6. 과도한 역량 집중은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및 단체별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하였다.

원흥이운동이 시작된 지 19개월을 경과하였다. 현장대립이 시작된 2004년 2월부터는 공사강행과 서식지보전을 둘러싸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므로써 긴급한 대응이 불가피하였다. 원흥이 천막농성 3개월, 탐방축제 2개월, 삼보일배 방문농성 5일, 성직자 단식농성 15일, 청주시민 60만배 36일, 도청앞 농성 19일 등 7개월 중 6개월 가량 외부 현장활동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현안을 방치하거나 느슨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소속단체들의 일상적 사업도 상당수 지연되기도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생태공원의 모델 만들기 - 원흥이마을을 가칭 ‘섬(蟻, 두꺼비)마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뒤따라야 할 후속작업은 생태공원화하는 일이다.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 등을 통하여 기본방향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특히 구룡산 일대 38만평의 청주대공원과 연계하므로써 습지와 산림생태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물서식지(biotope)가 유지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공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꺼비 등 양서류를 주요 생물종으로 설정하난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공원 조성 후에도 탐방프로그램운영, 두꺼비 씨터, 모니터활동 등 시민실천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

2. ‘시민포럼’ 구성과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참여와 교류

원흥이운동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였다. 계획이 확정되고 용지매각과 분양이 완료되면 의견반영의 폭은 매우 축소되고 또한 힘들어진다. 택지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지개발 시민포럼’등과 같은 지역내 시민사회역량의 안정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전제로 공인된 참여 틀을 확보해야 하며, 법률개정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개혁

국가 기간산업을 좌우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토지공사는 전국 택지개발사업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전략과 높아진 시민사회의 지향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생태 파괴와 사회갈등은 지속,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공사를 공기업 개혁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인력혁신이 필요하다. 대표급 간부들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 대부분의 경력이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제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간부급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인사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를 통찰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양원가 등 정보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기기업인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개발의 성격을 지니므로 매우 당연한 일이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판단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의 제도적 변화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택지개발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반면, 그들이 공익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택지개발에 따른 과도한 환경파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 방식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시급한 일이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부터 토지공급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승인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영향평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분야 즉 경제적 영향, 문화적 영향, 교육적 영향 등 택지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